

『율리시스』 독회: 「키르케」 & 「에우마이오스」

김 경 숙

<일러두기>

- * <발제>는 독회진행자가 보내온 자료에 근거하고, <토론 및 의견>은 독회에 참석한 회원이 독회 중 개진한 견해를 독회 후에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온 자료에 근거한다.
- * *Ulysses*는 Gabler 판본에 의거하여 장과 행을 표시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는다.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U*라고 표시한다.
- * 독회에서 거론이 되었더라도 Gifford의 주석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록할 경우 (G)로 표시한다.
- * 사후 접수된 의견 가운데 제목이 붙어있고 비중이 있으며 논점이 명확한 해제의 글은 <토막춘평>으로 분류한다.

제 78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3동 106호

일시: 2010. 7. 17. (토) 오후 2:00-6:3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3197~ 3439

참석자: 김종건, 김상욱, 이영심, 이종일, 남기현, 전은경, 김석, 손승희, 김길중, 정인경, 정성희, 박진훈, 유두선, 최석무, 김경숙, 그리고 서울대 학부생들 (정다희, 이주연, 강지연, 임지원, 박선영, 정진이, 김채현, 강태승, 문상호, 강은수, 김보겸, 최다아, 이경희, 소현지, 박상경, 한정선, 고은, 이은소)

<발제>

1. 3197-3291

벨로는 블룸의 비문이 쓰여졌다고 말하고, 그에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가지고 있는 동전을 내 놓고 죽으라고 재촉한다. 또한 그를 화장실(Jakes)에 물어 줄 것과, 그곳에서 자신이 결혼한 양조카인 커크 코헨(Cuck Cohen)과 다른 10-11명의 남편들과 함께 죽어 썩을(dirty)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례 들린 듯 웃으며, 블룸을 Mr. Flower라고 부르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한다. 블룸이 머리를 감싸 쥐며 자신의 의지력! 기억! 그리고 자신은 죄를 지었다! 라는 말을 읊조리며 울자, 벨로는 악어 눈물이라고 소리친다. 블룸이 땅에 얼굴을 대고 흐느끼자, 조종이 울린다. 어두운 색의 술을 두른 할례를 받은 인물들이 통곡의 벽에 서서 거친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며 사해의 과일을 그에게 던지면서 자신들의 하느님은 야훼 한분뿐이라고 라틴어로 말한다. 목소리들이 블룸이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미망인에 대해 언급하자, 부인을 순장한 장작더미에서 불꽃이 올라오며, 머리를 풀어헤친 님프가 동굴에서 나와서 블룸 위로 서서 울지 말라고 말한다. 블룸은 가지 아래에서 기어 나오고 님프는 계속해서 블룸에게 그가 자신을 사악한 무리들 속에서 발견했다고 말한다. 또한 석유 냄새가 나는 값싼 분홍색 종이에 숨겨져 있었으며 사교계 회원들의 김

빠진 음탕한 말이나 미숙한 젊은이들을 방해하기 위한 이야기 등등에 둘러싸여져 있었다고 말한다. 블룸은 거북이 머리를 그녀의 무릎으로 들어 올리며 다른 별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님프는 고무제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신의 가슴이 3주 만에 4인치 늘었다고 말하고 블룸이 자신에게 키스했다는 것과 자신의 눈과 가슴에 연필로 그렸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는 그녀의 긴 머리에 키스하고 찬사를 늘어놓는다. 그녀는 어둠속에서 그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그는 잠은 모든 사람의 최악의 측면을 누설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침대에서 떨어졌으며 아마도 밀쳐졌으며 코골이에는 steel wine이 좋다는 말을 언급하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결혼”이라고 말한다. 님프는 그 말들은 자신의 사전에 없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그 침실에서 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자, 블룸은 침대의 쇠고리가 느슨하다는 것과 침대보가 잘못 깔렸던 것을 이야기한다.

1. 벨로가 블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2. 블룸과 님프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들의 대화 내용은 무얼 함축하나?
3.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결혼”(3277)이라는 구절은 무얼 함축하나?

2. 3192-3379

블룸은 변기가 물리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폭포가 등장하여 의성어를 내자 주목들이 등장하여 나른한 여름날에 그늘을 주었다고 말한다. 아일랜드 국립 삼림 감독관 제목을 입은 John Wyse Nolan이 등장하여 그늘을 달라고 말하고, 주목들은 누가고등학교 소풍을 그리로 왔는지를 묻고 블룸은 Poula 고등학교? 라고 하다가 뇌진탕과 기차에 친 이야기를 한다. 그러자 Echo가 속임수(sham!)이라고 말한다. 블룸은 비둘기 가슴과 병목어깨를 하고서 패드를 댄 소년들이 입는 회색과 검은 색 줄무늬가 있는 작은 옷을 입고 흰색 테니스화를 신고 배지가 달린 빨간색 학교 모자를 쓰고 등장하여 십대의 자신은 다소 만족스러웠다고 이야기한다. 옷방이나 화장실에서의 뒤섞인 여자들의 냄새등을 이야기하자 그 시절의 모습이 무대 위에 등장한다. 주목이 등장하여 자신들의 고요한 그늘을 더럽힌 자들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다시 폭포 등장하고 님프는 파렴치하다고 소리치며 블룸은 자신이 조숙했으며(precocious) 숲의 신에게 자신을 희생했다고 말한다. 짝짓기의 시기였으며 모세혈관의 끌어당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Lotty Clarke가 자신을 유혹해서 넘어갔다고 이야기한다. 누가 보았냐고 묻자,

Staggering Bob이 등장하여 자신이 보았다고 한다. 암염소가 등장한 후에 블룸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홍조 띤 얼굴로 나뭇잎을 잔뜩 묻힌 채 상황이 사건들을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말하자 그는 사자머리절벽에서 주홍색의 물속으로 미라 복장으로 구른다.

1. 폭포수 아래에서 블룸이 학창 시절에 여자들과 성행위를 했던 것이 암시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측면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지의 여부)

3. 3380-3439

The Dummymummy와 Nannetty가 등장하고 님프는 불멸의 존재로써 전기를 먹는다고 말하며, 블룸은 자신이 완벽한 돼지였으며, 관장을 행한 적이 있다면서 그 재료와 방법을 말한다. Kitty, Florry, Lynch, Zoe, Virag의 목소리들이 한마디씩 하고 블룸은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폭포수가 다시 등장하여 의성어를 지껄인다. 간호사 복장으로 눈이 없는 상태로 등장한 님프는 Agatha 수녀를 언급하고 더 이상의 욕망 없음을 말한다. Button이 등장하여 Bip! 이라고 말하고 매춘부가 등장하여 블룸을 주제로 한 노래를 부른다. 블룸은 그들이 주문을 깨뜨렸다고 말한다. 주목들은 잎들을 거꾸로 떨어뜨리고 님프는 신성 모독이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덕을 시험하려했다고 분노한다. 그러자 그녀의 옷에 축축한 얼룩이 나타나고, 그녀는 블룸이 순결한 여자를 만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를 사탄이라 부르며 단검을 뽑아서 그의 허리를 찌른다. 블룸은 놀라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Nebrakada라고 외친다. 여우와 포도를 언급하며, 가시 달린 철사, 십자가 등과 대수도원장과 절름발이 정원사, 주둥이 없는 물주전자, Alphonsus, Reynard등을 언급한다. 그러자 님프는 베일이 벗겨진 채로 울면서 도망가고 그녀의 석고 틀이 금이 가고 그 틈으로부터 악취 구름이 나온다. 블룸은 님프의 강점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교배료는 무엇인지 묻는다. 도망가던 님프는 통곡한다. 블룸은 자신이 16년 동안 흑인 노예처럼 일했고 배심원이 자신에게 내일 5실링의 별거 수당을 줄 것인지를 묻는다. 암내(rut), 양파, 오줌(stale), 유향, 윤활유 등을 언급한다.

1. 님프와 블룸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2. Kitty, Florry, Lynch, Zoe, Virag의 목소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

서 나오는 것인지?

3. 님프가 순결한 여자를 만질 자격이 블룸에게 없다고 하는 이유와 그녀에게 나타나는 얼룩은 무엇인지?

4. 블룸의 교배료 운운과 16년간의 노동은 무엇인지?

5. 암내(rut), 양파, 오줌(stale), 유향, 유헬유 등등은 어떤 맥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인지?

<「Circe」 정리문 (김중건 교수님의 『율리시즈 연구 II』참고)>

시간적 배경 - Midnight

공간적 배경 - Night town: Bella Cohen's Brothel

서사적(Narrative) 특징

- Fantasy Drama 장르 차용-주로 블룸의 내적 환상이 외화되어 등장함.

- 변형된 internal monologue

모티프들 - 변신(transformation), 변형 (metamorphosis), 구속과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 정체성 허물기: 의식과 무의식, 여성과 남성, 인종, 지위, body와 mind의 이분법

장르 허물기: 드라마와 소설

----> 사회적 구조적 모순, 자본주의 체계, 닫힌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

-> 내적 욕망의 분출: 성적인 욕망, 사회적 욕망

-> body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Sex에 대한 부분이 집중 조명

-> Circe 이전, 혹은 이후의 사건들과 상황이 변형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가. Hodgart 교수의 Circe의 구조 분석 (p191-2)

1) 서막 1막-5막 종막으로 이루어진 총 7막

서막- 무대 지문과 밤의 거리, 스티븐과 린치 등장

1막-Breen 부인 등장. Bloom의 재판장면-블룸의 환상이며 Paddy Dignam의 출현으로 종결

2막-블룸의 Cohen가 입성과 Bloom의 변형-연설가, 정치가, 시장, 왕, 개혁가로 변모 이러한 과정의 시작과 끝은 Zoe에 의해서 시작되고 종결된다.

3막-스티븐, 블룸, 창녀들과의 대화로 구성. 블룸의 조부인 Virag의 등장
 4막-포주인 Bella Cohen의 등장과 gender 교환이 일어난다. 과학대성 강조.
 5막-스티븐과 그의 환상. 술에 취한 스티븐과 그의 죽은 어머니 등장
 종막-스티븐이 예수의 수난을 겪는 장면. 몇 개의 환상장면-영국의 제국주의와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횡포를 다룬다.

나. Hugh Kenner의 Circe 구조 분석 (P193-4)

1. 외부 세계: 스티븐과 린치의 등장, 블룸의 등장, 매음가의 블룸과 스티븐 창녀, 주요 등장인물의 퇴장
2. 내부 세계: 블룸의 자신의 성적 죄, 그의 부친 모친의 등장, 블룸의 깊은 성적 죄, 재판과정, 블룸이 변형된 인물들, 그의 조부, 스티븐이 변형된 인물들, 보일런과 몰리의 정사 장면, 루디의 등장

다. Circe의 특징 (p194-205)

1. 사실주의의 전통적 편진성을 파괴하고, 무의식적 꿈을 다루며, 블룸과 스티븐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된다. 문학 텍스트에서 제외되어 왔던 개인의 식의 걱정, 자아, 성적 본능, 무의식, 학대 가학성, 피학대 가학성, 동성애, 페티시즘, 자위 등의 내용이 등장한다. 이러한 환상들은 욕망의 충족과 관련된다. 인간 무의식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며, 정신분열증적 증상 역시 드러난다. 성적 탈선행위나 성적 도착 역시 드러나며, 유령(ghost, apparition)등의 등장 역시 두드러진다.
2. 표현주의적 묘사를 통한 초현실주의적 함축성을 드러낸다. 사실적 묘사와 환각에 의한 초현실적 장면의 결합. 한여름 밤의 광기에 의해서 외부적 지각이 내부적 환각을 자극한다. 인간의 마음은 환상을 응결시키는 무제한의 힘을 과시한다.
3. 블룸과 스티븐의 정교한 사이코드라마이다. 일종의 고백이자, 종교적 성례이며 꿈의 외형화이다.

<토론 및 의견>

<이종일>

-l. 3218. “Crybabby”는 문맥으로 보아 “Crybaby”의 변형으로 보이는데 “baby”가 아닌 “babbv”(“a”의 발음도 “happy”의 “a”와 같은 발음으로 달라짐)로 바꾼 의미는 무엇일까? 아직 발음이 명료하지 않은 아기의 발음을 흉내 낸 것?

-l. 3224. “chazen”의 의미는? (김길중 교수의 답변: “출처는 모르지만 “canter in a Jewish synagogue”라는 해설이 있음.”)

-l. 3232. “camphire”는 문맥상 “camp fire”일 것 같은데 철자를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영어에서 보통 “ph”가 “f”로 발음되는 데다가, 바로 앞의 “suttee pyre”에서 “pyre”에 대한 메아리 구실을 하게 하려는 뜻으로 보이기는 한다.

-l. 3254. Bloom의 “We have met before. On another star.”라는 말은 surface의 차원에서는 Bloom의 안방 침대 위에 걸려 있는 사진으로 본 것을 지시하는 것이겠지만, 암시적차원에서는 윤회(metempsychosis, reincarnation)의 모티프를 상기시킨다. Bloom이 Calypso 장에서 Molly에게 윤회의 개념을 설명할 때(4장 360~377행), “They call it reincarnation. That we all lived before on the earth thousands of years ago or **some other planet.**”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some other planet”가 “On another star”에 부합한다. 그리고 이어서 “They[the ancient Greeks] used to believe you could be changed into an animal or a tree, for instance. What they called **nymphs**, for example.”이라며 “nymphs”를 예로 든 것이 nymph가 특별히 윤회와 관련 있는 대상임을 말해준다. 또 이와 관련하여 3231~32행에서 죽은 Bloom을 장작불에 태우는 의식이 phoenix가 불에 담으로써 재생한다는 전설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윤회에 내포된 “죽음”과 “재생”의 개념을 뒷받침한다.

-ll. 3311~12. (“Mnemo? Not in full possession of faculties. Concussion. Run over by tram.”의 의미를 묻는 김중건 교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서 “Mnemo”는 “Mnemonic 또는 Mnemonics를 지칭하고 전차에 치임으로써 뇌진탕(concussion)을 일으켜 기억력(mnemonic faculties)이 약해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l. 3363. “Me. Me see.”는 3359행의 “Who saw?”라는 Bloom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아장아장 걷는 어린 소(“staggering bob”)답게 “I. I saw.”라고 해야 할 것을 어법에 어긋나게 서툴게 말한 것을 그대로 옮긴 표현일 것이다.

<손승화>

- 왜 sex 말하다가 지저분한 죽음을 예상하는 장면이 나오냐는 질문에 대해, 독회 당시 인간의 기본 욕망으로 성욕과 죽음에의 욕망을 들었던 프로이드를 떠올렸습니다. (나중에 김길중 교수님이 프로이드의 용어를 언급하셔서 반가웠지만, 이미 다른 논의로 넘어갔던 때였지요.) 리비도와 타나토스(?)라는 잠재된 인간 욕망을 염두에 두고, 어떤 개념도 고정시키지 않으려는 조이스는, 성욕이 그렇게 속되고 천한 것만은 아니고, 죽음 역시 - 흔히 순교 등으로 연상되는 종교적으로 신성시된 죽음도 그리 거룩하게 고착시킬 수 없는 것임을 뒤집어 보여주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대칭적인 전복의 예라고나 할까요.

- 김중건 선생님 언급하신 벨로와 님프의 퇴장과 등장으로 표상되는 대결구도 위에서 보면, <오디세이>의 헤르메스 역할을 투영할 존재가 <올리시스> 씨씨 장의 님프는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4장 윤희의 예로 님프가 나올 때 머리 늘어뜨린 모양 등 몰리와 비교 대조가 깔려있고, 벨로에게서 불륨을 구해내는 인물 (즉, 불륨의 남성성을 찾아주는 구실을 님프가 맡아줌)이 약초 물리를 건네주어 오디세이를 구하는 헤르메스의 인물기능과 병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났었습니다.

<최석무>

-1. 3293에서 불륨은 몰리의 요강에 대해 이야기한다. 흥미있는 것은 요강에 금이 갔다는 사실이다. 불륨은 이것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몰리의 몸무게는 그리 많이 나가지 않기에 그녀의 몸무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아니라고 불륨은 지적한다. 불륨의 대화 다음에 제시되는 폭포소리는 오줌 소리이지만 이는 몰리의 강력한 성적에너지로 암시한다. 요강에 금이 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1. 3289에서도 몰리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녀의 때가 탄 속옷이 정성껏(with care) 뒤집혀” 있는 것은 불륨을 유혹하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김경숙>

- <Circe>장에 대한 총평. 장 전체를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기억”과 “죄의식”이 아닐까. 물론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스티븐과 불륨 그리고 다른 주변 인물들이 Nighthtown에서 헤맨다는 실체적 사실을 어느만큼 부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에피소드 전반에 흐르는 장면 장면들은 흐름의 의식 저 밑바닥에 있는 기억 그리고 그 기억들을 둘러싼 죄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듯하다.

- <Circe>장이 “타자”에 관한 장이라고 설명하신 박진훈 선생님의 말씀에 보태자면, 잘 알려진 19세기 소설가 토마스 하디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중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남자주인공인 Angel Clare가 성직을 버리고 - 마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 디덜러스처럼 - 목장 일을 하며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있는데, 하디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He grew away from old associations, and saw something new in life and humanity. Secondly, he made close acquaintance with phenomena which he had before known but darkly - the seasons in their moods, morning and evening, night and noon, winds in their different tempers, trees, waters and mists, shades and silences, and *the voices of inanimate things*. (101, 강조: 필자)

위에서 하디는 엔젤이 무생물의 목소리를 알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조이스가 토마스 하디에게서 어느만큼 영향을 받았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비누, 모자, 손잡이 등 하찮은 사물에게까지 목소리를 부여하는 <Circe>장을 읽으며, 학계에 뜨거운 논쟁을 일으킨 바 있는 “하층민이 말할 수 있을까?”(Can the subaltern speak?)라는 스피박의 질문이 조이스에게 있어서는 이미 말을 하고 있는 타자의 말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32행 camphire. 왜 campfire가 아닌가에 대한 이종일교수님의 질문. 물론 campfire를 엄두에 두고 camphire라는 단어를 썼겠지만, “camphire”라는 단어가 존재한다. henna라는 식물에 대한 고어라고 한다.

<학부생들의 의견>

- 율리시스는 하나의 텍스트로 이렇게나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율리시스를 읽으면서 매 장의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 놓으시며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얼마나 공부해야 저 정도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중한 번역본을 마련해 주신 김종건

교수님을 직접 만나뵙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뜻 깊은 경험이었으며, 선생님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가 “Me, me see!”라고 말하는 사소한 점에도 주목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등 깊이 있는 해석과 다양한 관점을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의 소의 말의 경우에 (제가 라틴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틴어로 “(우리는) 놓쳤다!”(missed!)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miss”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데요, 조이스 학회의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다음 번에도 이와 같은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 좋은 경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학구적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분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어렵기도 했구요. 그 중에서 “텍스트의 무의식”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제 형식이나 토론 형식이 우리 수업에서 하는 것과 비슷해서 우리도 뭔가 문학 읽기에 발은 담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익한 경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문학 분야의 학회에 가본 것은 처음이라 궁금하면서도 신기하고 기대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조이스학회는 다른 이야기들보다도 텍스트에 집중해서 리딩과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교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텍스트만 열심히 읽으면서 따라가면 저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달까요 ㅎㅎ 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 조이스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함께 텍스트를 읽고 토론하시는 광경을 지켜보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물론 처음 기대와는 달리 저는 어려워져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많았구요 T_T;;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발제문과 텍스트를 열심히 읽으면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 확실히 다른 학회들에 참석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무엇보다도, 몇십년 올리브스 연구하신 김종건교수님께서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너무너무 좋았어요. ㅋㅋㅋ이렇게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벌써 챕터 6까지 왔는데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달까요.

-각각 다양한 관심분야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하나의 공통 텍스트를 close reading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104쪽 16줄에서부터 흐름이 말한 상극은 통한다(Both ends meet.)는 열

린 세계관이 율리시스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젠더가 교환되고, 상위인 인간과 하위인 동물이 전복되고,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는 장면에서 조금은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륨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인지 악어눈물만 흘리는 것인지 모호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이 텍스트의 또다른 장점인 것 같은데 6장까지의 인간적인 불륨의 모습을 볼 때 종교적인 깊은 죄책감까지는 아닌 보통의 사람이 느끼는 곧 사라질 얇은 죄책감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체력이 떨어져 피곤했지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 전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고요. 질문: 불륨이 “there were only ethereal where would you all be”라는 말을 통해 님프를 이기고 님프는 “With a cry flees from him unveiled, her plaster cast cracking, a cloud of stench escaping from the cracks”하는 것을.. 어떤 이상이나 환상도 불완전하고 낯새나는 현실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 님프의 최대 약점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비슷한 식으로 앞 부분을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님프를 이기고 쫓아보내면 불륨은 더 이상 님프를 이용해 (그리고 어릴 때 다른 여자아이를 생각하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등의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ickly) Yes, yes. You mean that I... Sleep reveals the worst side of everyone, children perhaps excepted.” “The demon possessed me.” 등을 보면 죄책감이 상당히 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조이스 학회에 참가하면서 처음 든 생각은 ‘조이스를 잘 모르는 풋내기가 이 자리에 앉다니’ 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귀찮아 하시지 않으시면서, 저희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시고, 또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학회에서 토론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역시 ‘조이스는 대단하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리시스』에서 한 구절을 바탕으로 그렇게 다양한 해석 방식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업에서 배울 때 각자 토론을 통해 서로 제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오지만, 역사, 철학, 문학적 지식들이 부족한 저로써는 피상적인 문제제기나 분석밖에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이스 학회에서는 성경을 기반에 두고 자세히 설명하시거나, 여러 역사적

사실을 통해 블룸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시더군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 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함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1,2장과 4,6장을 공부해서 그런지, 저로서는 스티븐과 블룸 둘 다 주인공인 듯합니다. 스티븐의 캐릭터 또한 여성의 몸에 관심을 가지는 블룸과 달리 더 지성적으로 사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듯이 보이는 것을 보면 작가인 조이스로서는 ‘스티븐’을 주인공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블룸이 주인공이라고 본다면, 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대변할 ‘스티븐’이 아닌 불완전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성적 탐닉을 추구하는 ‘블룸’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블룸이 주인공이라면 조이스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은데... 오히려 스티븐을 통해서 조이스는 자신의 생각은 ‘이것’이라고 은연중에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 율리시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율리시스를 공부하는 독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보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작품을 읽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하나의 의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수업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과 참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끼리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야기 했던 내용이 한 교수님의 설명과 일부 겹쳐서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야기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토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작품의 한 부분 부분들이 갖는 의미를 밝혀나가는 것을 보면 조이스가 정말로 오랜 시간동안 학자들을 고생하게 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느낄 수 있는 자리였던것 같습니다.

- 몇년에 걸쳐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토론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학자들에게도 계속 의문이 남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조이스가 대단한 작가이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독회때 다루어진 chapter 를 꼼꼼히 읽지 않아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인데 조금 엉뚱할 수도 있지만 the yews가 jews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년 재학 중인 09학번 강태승입니다.

오늘 조이스 학회의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토론하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 언급들은 기록되어야 할 만큼 가치 있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발제 1번의 1번 문항으로 제시된 “벨로가 불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문항을 보고 비코의 역사 순환적 발상이나 윤회, 변형, 변신, 자연의 순환 등을 생각하신 교수님의 의견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오뒷세이아』를 접할 기회가 많아서 키르케 장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던 와중에 “인간 → 돼지 (→ 인간)” frame에서 reincarnation을 떠올리신 교수님의 발상에 착안하여 원작 friendly한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원작에서 오뒷세우스의 전우들에게 돼지들에게 주는 먹이를 닮은 혼합식(포도주+꿀+곡물 등+돼지로 바꾸는 독)을 건네줘서 돼지로 만든 키르케는 헤르메스의 도움으로 몰리(몰리 불륨을 연상시킵니다.) 약초를 먹은 오뒷세우스가 혼합식을 먹고도 마법에 걸리지 않자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돼지로 만들려 합니다. 오뒷세우스가 헤르메스의 사전 충고에 따라 칼을 빼들고 키르케를 위협하자 키르케는 울며 사정합니다. 울리시즈의 세계에서 소위 “헤르메스적 존재”라 할 만 한 건 불륨 내부에만 살아있는 “정조를 지키고 있는 몰리” 이미지 혹은 자기 자신이라는 교수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륨도 오뒷세우스처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나약한 환상들로부터 벗어나야 “키르케의 섬”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스티븐이 막대기를 휘두른다는 점, 원작과 불륨의 괴리는 울리시즈의 주요 특징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시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저는 “상극 간에 서로 통한다,” “전치와 도치, 자리 바꾸기” 등을 떠올렸습니다.

죄책감 관련해서도 저는 원작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키르케는 오뒷세우스 만큼은 인간으로 인정하고, 혼합식이 아닌 제대로 된 상을 차려줍니다. 그러나 오뒷세우스는 우거지상인 채 음식을 들지 않습니다. 키르케가 자신은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술수를 부리지 않았다고 하자, 오뒷세우스는 키르케를 믿지 못해서 음식을 들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어떻게 전우들이 돼지로 변해 있는 것을 내버려 둔 채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며 전우들을 되돌려주길 요청합니다. 전우들이 인간으로 돌아온 후 그들과 회포를 풀 뒤 비로소 오뒷세우스는 식사를 합니다. 죄책감, 근심, 걱정 등이 다 해결되어야 비로소 돼지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을 인간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원작에서도 말하고 있습니

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비단 원작에서만 돼지가 키르케의 섬의 주요 모티프이자 상징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 문체에 있어서도 돼지가 주요한 상징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부정한 짐승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돼지입니다. 블룸은 자신이 진정한 돼지라고 합니다. 그는 돼지 콩팥을 먹은 바 있기도 합니다. 부정한 짐승의 부정함의 정수를 맛보며 생명력을 충전한 셈입니다. 이후 옆에 앉아 있던 문상호 군의 질문을 들으면서 님프와 블룸의 관계에 대해서, 님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분명 키르케 챕터에서는 헬레니즘적인 존재인 님프가 형이상학적이고 높고 성스럽고 이성적인 존재로 기능하지만 텔레마코스 챕터에서는 아일랜드가 헬레니즘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멀리건이 오히려 육체성과 인간성, 감정 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울리시즈 작품 전반에 걸친 “자리 바꾸기”의 예시로 보입니다. 그리고 님프는 pseudo-holiness가 아닐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필립 아리에스의 『죽음 앞의 인간』을 보면 수도원에서 “여인을 굳이 안으려 하지 마라. 그 가죽부대 안에 어떤 오물들이 득실거리는지 너희는 잘 알고 있다”고 가르친 문구가 제시되는데 석고 틀 내부에서 악취 구름이 새어나오는 것은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비록 유사 성스러움 일지언정 일말의 성스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지독하게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블룸과의 대조에서 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고, 여인의 나체가 성화들 속에서는 오히려 붉은 옷이나 노란 옷을 입은 탕녀들과 달리 신성한 종교적 여인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미진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류화하면서 느낀 건데 미진한 부분이 많더군요.. ^^;; 순발력으로 뻘뻘하기도 하고.. 우선 오늘 학회를 참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아... 바로 이것이 학회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발제하고 토론하고 생각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면서 보다 나은 견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학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조이스를 다루는 학회이기 때문에 구현가능한 것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어린 마음엔 공식적인 독회가 마냥 신기하기만 하더군요.. ^^)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조이스의 텍스트는 어정쩡하게 읽으면 낭패본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오늘 따라 더욱 피부로 느껴지더군요..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그나마 근근히 따라가고 있지만 오늘 다루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깊이 파는 견해는 결코 낼 수 없었고 다만 기준에 알고 있던 원작과

의 관계를 탐구해볼 수만 있었습니다. 김종건 교수님도 강조하셨듯이 텍스트 그 자체를 정확하게 여러번 읽어서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듯합니다.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

제 79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10. 8. 14.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3440~ 3714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이종일, 전은경, 길혜령, 남기현, 박진훈, 손승희, 유두선,
이영심, 김경숙

<발제>

1. 3390-3479

넙프는 불멸의 존재로서 음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순수하며 전기를 먹는다고 말하면서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대면서 자신의 몸을 음탕하게 오그린다. 블룸은 자신이 완벽한 돼지였으며, 관장을 행한 적이 있다면서 그 재료와 방법을 말한다. 또한 블룸은 자신은 죄를 지었노라(*Peccavi!* 3405)라고 말한다. 이어서 이름을 바꾸는 살아 있는 제단(3405)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한다. 또 갑작스럽게 열정적으로 우아한 향기가 나는 보석막힌 손(3406-7)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형제들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나무줄기들 부근을 감싸면서 어이어이 부른다. Kitty, Florry, Lynch, Zoe의 목소리들이 한 마디씩 하고 새의 모양을 하고 전쟁갑옷을 입고 깃털을 두르고 투창을 든 비러그의 목소리가 등장하여 덩다고 말하면서 앉아 있는 황소(3422)를 조심하라고 말한다. 블룸은 여자가 넓적다리를 벌리고 바지를 들어 올리고 앉았던 자리에 대한 자신의 페티시즘을 언급한다. 수녀 복장을 하고 눈이

없는 상태로 등장한 님프는 Tranquilla 수도원(총독의 수청을 거부해 교살된 수녀가 있었던 곳)의 Agatha 수녀, Carmel 산, 그리고 Knock and Lourdes의 망령을 언급한 뒤에 더 이상 욕망이 없다고 말한다. 불륨의 뒷바지 단추가 푹 끊어진다. 매춘부가 등장하여 이 상황을 내용으로 한 노래를 부른다. 불륨은 그들이 주문을 깨뜨렸다고 말한다. 주목들은 잎들을 거꾸로 떨어뜨리고 님프는 신성모독이라고 소리치자, 그녀의 옷에 축축한 커다란 얼룩이 나타나고, 그녀는 불륨이 순결한 여자를 만지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탄이라 부르며 단검을 뽑아서 그의 허리를 찌른다. 불륨은 놀라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Nebrakada라고 외치면서 여우와 포도, 가시달린 철사, 십자가 등과 대수도원장과 절름발이 정원사, 주둥이 없는 물주전자, Alphonsus, Reynard등을 언급한다. 그러자 님프는 베일이 벗겨진 채로 울면서 도망가고 그녀의 석고 틀이 금이 가고 그 틈으로부터 악취 구름이 나온다. 불륨은 님프의 강점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교배료는 무엇인지 묻는다. 불륨은 자신이 16년 동안 흑인 노예처럼 일했고 배심원이 자신에게 내일 5실링의 별거 수당을 줄 것인지를 묻는다.

1. 불륨이 스스로 돼지였던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2. 폭포수의 등장은 방뇨행위나 혹은 정자 방출 즉, 자위나 성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3. 여자들의 사용한 화장실 변기에 대한 불륨의 페티시즘은 어떤 맥락으로 해석해야하는지?

4. 수녀의 순교내용을 삽입한 의도는?

5. 님프가 순결한 여자를 만질 자격이 불륨에게 없다고 말하는 이유와 그녀에게 나타나는 얼룩과 악취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6. 불륨의 교배료, 별거수당 운운과 그리고 16년간의 흑인 노동은 무엇인지?

2. 3480-3632

벨라가 등장하자 불륨은 그녀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새끼양처럼 옷을 입은 어미양이라고 한다. 외모를 위해서는 밤에 양파를 피할 것과 두 턱에 드릴을 쓸 것, 마치 박제된 여우의 눈처럼 얼빠진 눈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은 삼단 나사 프로펠라가 아니라고 말한다. 벨라는 그가 게임을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자, 그녀의

앞돼지 음부가 짓고, 블룸은 그녀에게 손톱을 깨끗이 하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한다. 둘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피아노로 장송곡을 연주했다고 이야기하는 Zoe와 블룸사이에 부적인 쭈그러진 감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다. 블룸은 그 부적에 추억이 담겨 있으니 달라고 하자, 스티븐은 햄릿의 대사를 패러디하여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라고 읊조리자, 조위는 스타킹 속에서 감자를 꺼낸다. 벨라가 누가 계산할지를 묻자, 스티븐은 지갑을 뒤져서 지폐와 금화를 꺼내 벨라에게 건넨다. 그녀는 그에게 세 명의 여자를 원하는 지를 묻고 10실링이라고 이야기한다. 인물들은 계속 매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린치는 Kitty의 허리를 잡고 소파에 등을 대고 누워 키스한다. 블룸이 파운드 지폐를 스티븐에게 주면서 스티븐이 떨어뜨린 성냥갑을 주워 준다. 그는 스티븐에게 현금을 자신에게 맡기라는 말을 한다. 스티븐은 할머니를 묻는 여우 이야기를 하며 담배를 달라고 해서 성냥을 켜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Ineluctable modality of the visible(보이는 것들의 불가피한 양식)”이라는 ‘Proteus’의 첫 구절을 읊조리며 스프링크스의 수수께끼라며 한밤중에 두 개의 등을 갖는 짐승을 이야기한다.

1. 블룸의 쭈그러진 감자에 대한 집착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2. 돈을 내고 여자를 사는 행위인 매춘에 대한 언급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3. 스티븐의 수수께끼들, 할머니를 매장하는 여우와 한 밤중에 등이 두 개가 되는 짐승에 함축된 것은?

3. 3633-3714

조위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그녀를 데리고 간 런던 출신의 Lambe에 대해서 말하자, 스티븐은 속죄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스티븐의 손에서 담배가 미끄러지자, 블룸은 그것을 주워서 벽난로에 버리고는 그에게 무엇인가를 먹기를 권한다. 그러자, 스티븐은 바그너의 가곡으로 화답하고 조위는 ‘햄릿, 나는 너의 아버의 송곳(술)이다’라고 햄릿을 패러디한 뒤에 그의 손금을 봐주면서 주름이 없어서 지혜가 없다는 것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스티븐이 고개를 젓는다. 린치는 그녀에게 누구에서 손금을 보는 법을 배웠는지를 묻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앓는 물건(!)에게 물어보라고 말한다. 그는 별로 때리는 때라고 말하면서 그녀를 찰싹찰싹 때리자, 피아노의 뚜껑이 열리고 대머리인 도란 신부의 얼굴이 나

탄탄 뒤에, 안경과 관련된 *Portrait*의 장면이 연출된다. 조위는 스티븐의 손바닥을 보면서 여성의 손이라고 말하고 스티븐은 대구위에 찍힌 엄지손가락 지문맡고는 그의 손글씨를 읽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조위는 스티븐이 무슨 요일에 태어났는지를 묻고, 그는 목요일 오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목요일의 아이는 출세하며, 손금을 읽으면서 운명선에는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조위는 계속해서 달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좋지 않은 것은 이야기하기 싫다고 하면서 말을 얼버무린다. 이에 블룸은 스티븐의 손을 떼어내고 자신의 손바닥을 내밀고서 봐달라고 한다. 조위가 바다 건너서 돈과 결혼할 운명이라고 말하자, 그는 틀렸다고 한다. 그러자, 그녀는 짧고 작은 손가락은 공처가라고 하면서 틀렸는지 여부를 묻는다. 그때 알을 낳는 거대한 수탉인 블랙리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여성형 대명사로 받는다. 블룸은 자신의 22년 전에 16살이었을 때의 사고로 생긴 자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1. 계속해서 자유롭게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연결되는 장면이 이어진다. 예를 들면, Lambe가 lamb을 찢아 찢는 소리가, 스티븐의 어린시절의 기억을 끌어오는 장면에서처럼...> 이것은 의도된 방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고 있는 것인지?

2. 손바닥을 통해서 스티븐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강조되는 것은 용기와 감성, 그리고 영향력 있는 친구들... 그러면서 말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인지?

3. 블룸을 공처가로 이야기한 뒤에 나오는 알낳은 거대한 수탉과의 연관관계는?

4. 3715-3793

스티븐은 자신은 22살이고 블룸은 16년 전에 22살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22년 전에 블룸이 목마에서 떨어진 것, 자신이 16년 전에 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손이 다쳐서 치과의사를 만나야겠다고 이야기한다. 보일런과 래너헌과 올몬드의 심부름꾼들, 그리고 Lydia Douc와 Mina Kennedy가 탄 324호 삼마차가 Harmony 대로 지나간다. 심부름꾼들은 그녀들을 희롱하고 보일런은 입에 빨간 꽃을 물고 모자를 비스듬하게 쓴 채 마차벽에 기대어 있다. 래너헌은 보일런의 코트에 묻은 긴 머리카락을 떼어주면서 보일런의 성행위에 관한 농담을 주고 받는다. 보일런

은 마차에서 내리면서 블룸에게 그의 부인이 준비되었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여기부터는 하인 역할을 하는 블룸과 몰리를 만나러 온 보일런의 모습이 묘사된다. 보일런은 블룸에게 6펜스를 주며 술을 사먹으라고 말하고, 목욕중이던 마리온은 보일런에게 달려달라고 말한다. 보일런은 신나서 블룸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훔쳐 봐도 된다고 말한다. 블룸은 두 명의 친구를 데려와 사진을 찍어도 좋은지 묻고 연고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1. 스티븐과 블룸의 특별한 관계가 강조되고 있는데, 둘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2. 여기서 보이는 보일런과 블룸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토론 및 의견>

<이종일>

-l. 3449-50. If there were only ethereal...: ethereal은 사전에 명사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였다. 작가는 혹시 일부러 이 형용사 뒤에 나오는 직한 명사를 생략함으로써 물질성을 배격한 천상 세계의 허황됨을 비꼬는 통사적 수사를 시도한 것일까?

-l. 3472. on the double & l. 3474. on the nail: 둘 다 immediately, instantly의 뜻이다.

-l. 3475. I have sixteen years of black slave labour behind me.: Bloom이 결혼생활 동안 남성으로서 성적인 봉사를 했다는 -충분히 진실하지는 않지만- 주장이다. 그러니 자신한테 봉사 받은 nymph도 “종마급여(studfee)”를 내라는 것이다. 여기서 16이라는 숫자는 뒤 3629행 및 3714-20행에서 Stephen이 떠올리는 *Portrait*의 “pandybat” 사건이 16년 전이라는 사실에서 모티프의 반향을 일으킨다. Bloom과 Stephen의 나이 차이도 16년이고 Bloomsday도 16일이다. 16은 *Ulysses*에서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숫자 모티프라 할 수 있는 8의 2배수이기도 하다. 또한 pandybat 사건은 사소한 사건이 아니다. *Portrait*에서 Stephen이라는 순교자 이름이 갖는 박해의 모티프는 박해 또는 멸시 받는 예술가의 모티프로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이므로 pandybat의 trauma는 *Portrait*의 1장 마지막에서 아주 인상적인 epiphany로 처리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1. 3487. I'm not a triple screw propeller: Bloom이 자신은 정력 센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었지요? (이에 대해 double screw propeller에서 진일보한 것이므로 그런 의미일 거라는 김길중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음)

-1. 3484. the last thing at night(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first thing in the morning(아침에 눈 뜨는 대로 맨 먼저)에 대한 반대 어구이다.

-1. 3489. You're not game: game은 명사가 아니라 “팔팔한”이란 의미의 형용사이다.

-1. 3496. Dead cod!: stick in the mud와 더불어 Bloom의 성적 무능력을 지칭하는 용어임.

-1. 3509.: potato: *Odyssey*에서 Odysseus가 Circe의 주문을 벗어나기 위해 Hermes에게서 받아 사용한 약초 moly처럼 *Ulysses*에서 Bloom이 Bella 또는 nighttown에서의 곤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부적 같은 상징물이다.

-1. 3599. Lucifer: 원래 “carrier of light”란 뜻이므로 불 켜는 성냥 이름으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Lucifer가 실제 빛이 아니라 어둠의 존재란 것을 생각하면 아이로니컬하기도 하다.

-1. 3628. lynx eye: lynx-eyed란 sharp-eyed의 의미이다. 동시에 음성학적으로는 여기서 Stephen의 대화 상대인 Lynch의 이름과 연결되며 한 눈으로 볼 때 “flat”해 보이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눈으로 보라는 의미의 link(s) eye를 은연중에 암시하기도 한다.

-1. 3655. Hamlet, I am thy father's gimlet.: gimlet은 칩테일의 일종인데 술이 spirit이므로 *Hamlet*의 원문대로 Hamlet, I am thy father's spirit란 의미를 유지한다. 동시에 gimlet은 Hamlet과 소리가 비슷하므로 부자관계(father-son relationship)의 이체동질(consubstantiality)의 모티프를 시청각적으로 예시한다.

-1. 3660. Sheet lightning courage: “Courage that is essentially passive or is displayed by someone remote from danger”란 의미이다. sheet lightning은 막전(幕電), 즉 번갯불이 하늘 또는 구름에 반사하여 하늘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1. 3701. Travels beyond the sea: Odysseus의 경험을 암시하는 Homeric parallel로서 1. 3705의 short little finger가 immaturity를 암시한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즉 father-son relationship에서 Odysseus 및 Bloom의 경험(experience)과 Telemachus

및 Stephen의 순진(innocence)의 대조적 관계를 보여준다.

<길혜령>

-I. 3405-07: 조이스는 *Exiles*에서 “A kiss is an act of homage”(41)라고 한다. 그리고 블룸은 몰리의 엉덩이에 키스를 하곤한다(18.1402). 또한 다른(외간?) 남자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여자를 셰익스피어를 인용하여 “the beast that has two backs”(15.3631-32)라고 묘사한다. 그렇다면 “I have paid homage on that living altar where the back changes name.”는 성행위의 상대(the [other] back [of the beast])가 번번이 바뀌는(17.2133-42) 곳인 여성의 엉덩이에, 혹은 몸을 성전(temple of holy spirit)이라고 할 때 제단처럼 솟아올라있는 살아있는 제단으로서 엉덩이에(on that living altar) 블룸이 키스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For why should the dainty scented jewelled hand, the hand that rules ...?는 여성 혹은 여신의 손이 왜 (음부를 가리느냐)?의 의미로 보면 음부가 없다(3392)는 님프의 말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지문에서 “thicket”이나 “underwood”도 음모에 대한 비유로 보인다.

-II. 3530-92: 유대인인 블룸의 금전계산에 대한 정확함과 동시에 스티븐에 대한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부분. 스티븐이 자기와 린치의 화대로 20실링에 해당하는 1 파운드 지폐를 내놓자, 벨라는 조이, 플로리, 키티 세명의 값으로 30실링을 요구한다. 스티븐이 사과하며 10실링에 해당하는 2 크라운을 추가로 내놓는데, 블룸은 자기 몫으로 10실링인 half sovereign을 따로 지불하여 모두 40실링이 테이블에 놓여있게 된다. 조이가 먼저 half sovereign을 집어넣고, 키티가 2 크라운을 가져가자, 플로리가 파운드 지폐를 쳐다보며 And me?한다. 그러자 블룸이 플로리의 몫으로 half sovereign을 추가로 내놓고 파운드지폐를 집어서 스티븐에게 돌려준다. 즉, 벨라는 30실링을 받고, 스티븐이 10실링, 블룸이 20실링을 지불한 셈이다.

-I. 3660: 조이가 스티븐의 손금을 보며 용감하다는 말에 린치가 “sheet lightning courage”라고 표현한 것은 “it is I must kill the priest and the king”(4436-37)이라고 외치는 스티븐의 용기(허세)와 번개와 천둥을 무서워해서 책상 밑에 숨곤했던 조이스에 대한 절묘한 비유

-I. 3701: “Travels beyond the sea and marry money”는 블룸의 유대인으로서의 속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숙>

-l. 3405. I have paid homage on that living altar where the back changes name. 등이 이름을 바꾸는 살아있는 제단에 블룸이 경의를 표해왔다는 것은 블룸과 님프와의 대결 구도에서 블룸의 속스러움을 나무라는 님프에게 자신의 속스러움이 결국 님프의 성스러움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살아있는 제단”이란 여러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여인의 몸뚱아리도 될 수 있고, 이종일 교수님 의견처럼 여러 남녀가 뒤엉킨 채 거처가는 침대가 될 수도 있다. 앞서 13장에서 성당에서의 미사를 배경으로 거티를 바라보며 행하는 블룸의 수음에서 거티의 속옷과 스타킹이 성배역할을 했던 장면도 연상되며, 침대와 제단을 하나의 차원으로 묶는 조이스의 철학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 (3405행은 7월 독회 범위이지만 8월 독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졌기에 8월 독회에 포함한다.)

-l. 3449. You have broken the spell: 여기서 You는 앞서 3441행에서 “Bip”이라 외치며 떨어진 단추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단추가 떨어짐으로써 비로소 블룸은 마법에서 깨어날 수 있었으니까.

-l. 3474. What's your studfee?: 님프는 블룸이 순결한 자신을 겁탈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블룸은 님프에게 교배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subversion으로 읽을 수 있을 듯. 특히 “studfee”는 보통 암컷동물의 주인이 수컷동물의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이므로, 그야말로 천상의(ethereal) 존재임을 자처하는 님프의 수준을 인간도 아닌 동물 수준으로 격하시키려는 블룸/조이스의 의도도 있는 듯하다.

-l. 3658. No kid: Zoe가 스티븐의 손금을 보는 맥락이기에 “아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한다는 전은경선생님의 의견이 있었지만, 바로 전 행의 “(Stephen shakes his head)”를 스티븐의 불신의 행위로 간주한다면, “농담 아니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제 80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9동 424호

일시: 2010. 9. 18.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3715~ 3894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이종일, 전은경, 민태운, 길혜령, 남기현, 박진훈, 손승희,
유두선, 최석무, 이영심, 김상욱, 김경숙, 김동욱(서울대 영문과 3학년)

<발제>

1. 3715-3793

스티븐은 자신은 22살이고 블룸은 16년 전에 22살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22년 전에 블룸이 목마에서 떨어진 것, 자신이 16년 전에 넘어진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스티븐과 블룸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손이 다쳐서 치과의사를 만나야겠다고 이야기한다. 보일런과 래너헌과 올몬드와 심부름꾼들, 그리고 Lydia Douce와 Mina Kennedy가 탄 324호 삼마차가 Harmony 대로를 지나간다. 심부름꾼들은 그녀들을 희롱하고 보일런은 입에 빨간 꽃을 물고 모자를 비스듬하게 쓴 차마차벽에 기대어 있다. 래너헌은 보일런의 코트에 묻은 긴 머리카락을 때어주면서 보일런의 성행위에 관한 농담을 주고받는다. 보일런은 마차에서 내리면서 블룸에게 그의 부인이 준비되었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여기부터는 하인 역할을 하는 블룸과 몰리를 만나러 온 보일런의 모습이 묘사된다. 보일런은 블룸에게 6펜스를 주며 술을 사먹으라고 말하고, 목욕 중이던 마리언은 보일런에게 말려달라고 말한다. 보일런은 신나서 블룸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훔쳐봐도 된다고 말한다. 블룸은 두 명의 친구를 데려와 사진을 찍어도 좋은지 묻고 연고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1. 스티븐과 블룸의 연관성을 16과 22라는 숫자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2. 마리언(몰리)의 정부인 보일런이 더 당당하고 블룸은 오히려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이 장면이 블룸의 내면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보일런에 비해 위축되어 있는 블룸의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 아내의 성적 탈선에 대해서 관대함을 드러내는 것인지?

3. 마리언의 대사에서 블룸에게 채찍질을 가하게 할 것이고 서명날인되고 인장이 찍힌 영수증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함축하는 것인지? (3777-3781)

2. 3794-3861

보일런과 몰리의 정사가 두 사람의 의성어를 통해서 암시되고 이를 보고 있는 블룸의 관음증적 증상이 드러나며 그는 흥분하여 자신을 꼭 껴안는다. 스티븐과 블룸이 거울을 응시하자, 거울 속에서 수염이 없는 셰익스피어가 등장하는데, 얼굴이 마비된 모습이다. 그는 블룸에게 이아고와 목요일의 아침(여자)를 교살한 내용을 언급하는데, 이는 오델로의 내용에 대한 암시인 듯하다. 블룸이 이에 대해 언급하자, 조위는 블룸에게 홀아비, 그리고 두 번 결혼등을 운운한다. 블룸은 과오는 용서받는다라는 말을 읊조리고 나폴레옹의 사후 검시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때, Mrs. Dignam이 상복을 입고서 들창코와 상기된 뺨을 앞세워 자신의 새끼를 쫓는 어미 백조의 모습을 등장한다. 그녀의 스커트 밑으로 디그넬의 바지와 신발등이 보인다. 그녀는 과부 보험증서를 들고 있고 우산 밑에 Patsy, Freddy, Susy, Aline와 아기등 그녀의 자식들을 품고 있다. 그녀는 상장을 과시하면서 아이들을 손바닥으로 때린다. 셰익스피어는 다시 재혼에 대해서 언급한다. 수염이 난 마틴 커닝엄의 얼굴이 셰익스피어의 얼굴로 바뀌고 천막 우산이 흔들리고 아이들은 도망간다. 우산 밑에서 과부모자와 기모노를 입은 Mrs. Cunningham이 등장하여 노래하면서 자신을 사람들이 아시아의 보석이라 부른다고 말한다.

1. 보일런과 몰리의 정사장면, 그리고 이를 보고 있는 블룸의 관음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 블룸과 스티븐이 바라보고 있는 거울 속에 등장하는 셰익스피어를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3. 갑작스럽게 오델로가 삽입되는 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4. Mrs. Dignam은 죽음에 대한 언급 때문에 등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 묘사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5. 이혼, 과부, 재혼등이 여기에서의 중심 모티브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3. 3862-3933

마틴 커닝엄은 자신의 부인을 바라보며 화류계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스티븐은 라틴어로 성구인 “그리하여 정당한 자는 뿔을 쳐들게 되리라(하느님께서는 악인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신다. 시편)”를 읊조린다. 그는 그리스 신화의 미노스 왕의 왕비 Pasiphae와 황소와의 정교 이야기를 끌어온다. 그녀의 욕정으로 인해 참회실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포도주에 취한 노아의 방주를 언급한다. 벨라가 스티븐에게 면박을 주자, 린치는 그가 파리에서 돌아왔다고 말한다. 이에 조위는 스티븐에게 프랑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그는 프랑스의 밤의 환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어서 웃음이 대성공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는 매춘부와 유사한 천사와 악한과 유사한 사제들, 근사하게 옷을 입은 고급 창녀 등을 언급한다. 이어서 워털루와 수세 변소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간밤에 꾸는 꿈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 곳이 이곳이었음을 말한다. 이 때 블룸이 그에게 다가간다.

1. 미노스왕의 왕비와 황소의 정사에 관한 그리이스 신화가 삽입된 이유와 효과는?
2. 스티븐의 파리 묘사는 긍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가?
3. 스티븐의 꿈은 어떤 함축성을 가지는 것인지?

<토론 및 의견>

<김길중>

[Circe장 459쪽 3713행 이하 22년과 16년의 숫자의 비밀에 관한 단상]

암탁 Black Liz가 새로 알을 낳고 이어서 Bloom이 손의 상처자국(weal)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22년 전’에 ‘떨어져 다친 상처’다, 그 때 ‘내 나이 16세’였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그 다음 Stephen의 화답(3718행 이하)이 드러내듯이 Bloom-Stephen-Joyce의 운명에 관한 코멘트 일 것이다. 곧 현순간인 Bloomsday 기점 22전이라면 Stephen-Joyce가 태어난 1882년이고, 그 해에 Bloom-Joyce가 ‘떨어져 다친 상처’는 Icarus의 terrestrial fall의 birthmark일 것이다. 따라서 ‘22년 전’

은 매우 상징적 연대이다. 암시된 나의 탄생이 Stephen-Icarus의 행공(行空) 추락과 아담-이브의 낙원 추방(fall)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그 때에 ‘내 나이 16세’라 함은 Stephen-Joyce와 Bloom-Joyce의 나이 차이이다. 이 16년의 연차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두 가지 뜻으로 그러하다. 하나는 트리에스테 시절 영어 선생 하던 작가의 연상의 총기 있는 학생으로서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후원하였으며 훗날에는 Bloom의 한 모델이 되는 형거리 유태인의 후손 Schmitz (필명 Svevo)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나이가 조이스보다 16년 위였다. Bloom과 Stephen의 나이차와 같다. 그런데, 훗날, 쥘리히의 Frank Budgen이 오디세우스 모형은 이해하겠고, 유태인 모형도 대강 이해하겠는데, 왜 형거리 유태인이어야 하느냐 물었고, 조이스는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는 형거리 조상을 가졌으니까! 라고 신비롭게 이야기 했다 한다. 그것은 뒤집어 이야기 하면 Schmitz가 16세 격차를 가졌기 때문에 Bloom의 모델이 되는 것이고 형거리 유태인 배경도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상당한다. 16은 마법의 숫자인 것이다. 왜 그런 집착인가. 38세 조이스가 이 글을 쓰는 시점이 글 세계 속에서 1904년 6월 16일로 고착된 지난날의 자신인 22세 청년 스티븐과 가지는 나이의 격차가 16년인 것이다. “22세 먹은 16년 전의 저 나를 16년 지난 지금 38세 먹은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이 기막힌 푸닥거리(혹은 탐구) 속에 실은 심각한 자기연민도 깔려 있는데, 그런 속사정이 비슷한 놀음을 더 왕성한 규모로 Ithaca장에서 되풀이하게 하고 있는데, 표면은 가볍고 가벼운 숫자놀음으로 처리되어 있다.

[블룸의 지나치게 피학적 관음증으로 보이는 부분에 관해]

이런 유의 피학적 쾌락이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이상 성심리의 한 국면이겠지 만, 그것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현상의 보이지 않는 이면을 탐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조이스 텍스트에서 블룸이 상당한 언설을 아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증거로 삼아, 아하, 블룸은 여차여차한 유형의 일탈적 인간형이다, 이렇게 못질하는 것은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조이스 텍스트 운용의 큰 원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간 조이스는 배신의 개인적 아픔과 역사의 배신의 현실성을 항상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배반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아픈 것이 정의리의 배신일 것이다. 블룸-몰라-보일런의 개인적 성적 삼각관계는 그 예리함 때문에 상징성과 문제성이 극대화 되는 설정이다. 블룸의 피학적 쾌락은 블룸 개인의 인간형을 규정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배신 어법의 탐구 차원에

서 이해하는 노력을 같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하다고 본다.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특히 Circe장에서는 등장인물의 말이 자신의 본색을 진정으로 표현한다기보다 이미 유포되고 있는 관념을 휘몰아 들어내고 자리 잡아주고 제 삼의 효과를 합주하기 위해서 연고가 닿는 남의 입을 경로로 활용하는 수가 그토록 많지 않은가! 아무리 블룸이 자기의 입으로 피학의 쾌락을 토로하고 있더라도, 이른 참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블룸 좀 보라, 저 자가 본심을 자백하고 있구나, 해서는 아니 될 것 같다. 『율리시스』에서 조이스가 확연히 던진 메시지가 있다면 그 하나는 지나친 본질주의의 경계일 것이다.

<이중일>

- II. 3714-20. 16과 22의 숫자 모티프는 “만물의 이면에는 자력이 작용한다(Back of everything magnetism)(13. 986)”는 점에서 우연의 일치(coincidence)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진 Joyce 다운 수법이다. 현실의 차원에서는 별 의미 없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징적 차원에서는 나름의 의미가 없지 않다. *Ulysses*에서 8이란 숫자는 two eyes, two eggs, buttocks, breast, Penelope의 여덟 문장 등의 사물 또는 개념과 결부되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형태적 측면에서는 방황과 순환이라는 주요 모티프를 시사하는 숫자이다. 그리고 11은 Rudy가 죽은 후 지난 햇수와 일치한다. 16과 22는 각각 이 8과 11의 2배수인 것이다. 또한 Bloomsday가 16일인 점, Bloomsyear가 Joyce가 태어난 지 22년째 되는 해인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설마 *Ulysses*가 출판된 해가 1922년인 것까지 Joyce는 염두에 둔 것일까?

- I. 3781. “receipt”는 무엇에 대한 영수증인지? - 이에 대하여 Bloom에게 강력히 매춘부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라는 의미일 것이라는 김길중 선생님의 의견이 있었음.

- II. 3820-24. Stephen과 Bloom이 들여다보는 거울에 얼굴이 경직되고 수염이 없는 Shakespeare가 흠의 사슴뿔 옷걸이를 왕관처럼 쓴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장면은 1차적으로 부정한 아내를 둔 Bloom과 Shakespeare, 그리고 Martello Tower를 Mulligan에게 빼앗겼다고 느끼는 Stephen이 모두 나름대로 오장이진 입장이라는 점에서 연관된다. 아울러, 미학적 차원에서 the father, the son, the spirit의 trinity 개념이 구현된 양상을 보인다. *Hamlet*에서 부자관계인 King Hamlet과 Hamlet을

창조한 Shakespeare가 다른 의미에서 부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Bloom과 Stephen을 창조한 Joyce의 대역으로 등장한 것이다. Chapter 9에서 Stephen이 Shakespeare 이론을 전개하면서 조물주가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듯, 작가는 자신이 창조한 작중인물 하나하나를 두루 거치고 다니는 바람이자 유령 같은 존재라고 말했던 대목을 상기해보자.

<최석무>

-II. 3718-21은 스티븐이 하는 말로 “역사는 신의 현현으로 이르게 된다”는 “네스토”장에 등장하는 디시 교장의 역사관을 조롱하는 대사로서 이루어져 있다. 스티븐은 나이대별로 블룸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났다고 한다. 그의 행로는 블룸의 그것을 따르기에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디시의 묵시론적 역사관을 패러디한다. 더 나아가 스티븐은 예수를 패러디한다. 그는 “어디선가 내 손을 다쳤어”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예수와의 유사함을 보여준다. 15장 마지막 부분에 피를 흘리는 그의 모습은 이러한 유사성을 강조한다. 블룸 또한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율리시스에 등장한다(예를 들어 5장에서 예수를 흉내 내어 욕조에서 하는 말 “This is my body”). 조이스는 스티븐과 블룸에게 예수의 이미지를 부여하여 신이란 우리주위에 현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 디시 교장의 역사관에 도전한다.

<길혜령>

-II. 3787-93: 자신의 아내인 Molly와 정사를 벌이려는 Boylan에 대한 Bloom의 협조적이며 관음증적인 태도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역사적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영국지배하의 아일랜드 역사는 아일랜드의 능동적 행위의 기록이라기보다 영국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피동의 기록에 불과하였으며, 아일랜드는 종종 영국의 행위에 대하여 저항보다는 협조를 마다하지 않았고(“Irish soldiers had as often fought for England as against her, more so, in fact” 16.1042), 그리하여 영국(Boylan as stranger)의 아일랜드(Molly) 찬탈행위를 차라리 즐길 수밖에 없었던 아일랜드(Bloom)의 자기관조적인 비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 15.3857: Mrs Cunningham in merry widow hat and kimono gown ~

Martin Cunningham은, 1904년 7월에 익사하여 조이스와 아버지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Matthew Kane을 원형으로 하며 Dignam의 장례식도 Kane의 것을 모델로

한다고 일컬어진다(Robert Nicholson, *The Ulysses Guide* 36). Ulysses에서 살아있는 Cunningham의 부인이 미망인처럼 “merry widow hat”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흥미롭다. 또한 일본 기모노를 입고 있는 것은 1904년 당시 아시아의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1905년 노일전쟁의 승리를 예상하게 하는 일본의 위력이 기모노를 유럽의 최신 패션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 3896: *Vive le vampire!*에서 vampire는 bloodsucking empire (“His Majesty . . . sitting on his throne sucking red jujubes white” 8.4; 15.4477)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김경숙>

-1. 3745-3817. 블룸이 제복입은 하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몰리와 보일런의 정사를 엿보기도 하고 혹시 바셀린이나 미지근한 물이 필요하지 않은지 묻는 장면이다. 이는 그들의 정사장면을 훑쳐보며 쾌감을 느끼려는 블룸의 관음증적 욕망을 투사하는 면이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그보다는 몰리와 보일런의 정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한 처지를 빗대고 극대화시켜서 시중 역할을 자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책감과 죄의식으로 가득한 블룸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자신을 포함하여 몰리와 보일런 세 사람에게 대한 관계를 피가학적으로 다시 상상하는 것은 아닐까.

-1. 3771 “carriage sponge.” 마차를 닦을 때 쓰던 스폰지인데 목욕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1. 3821-3853. 셰익스피어의 등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이 부분의 주제가 오쟁이진 남편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역시 블룸과 디그넬 그리고 커닝엄과 더불어 오쟁이진 남편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Stephen and Bloom gaze in the mirror. The face of William Shakespeare, beardless, appears there”라는 부분이 보이듯, 스티븐과 블룸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는 듯하다. 즉 앞서 9장에서 스티븐은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복잡한 부자관계를 대수학적으로 증명한 바 있는데, 셰익스피어라는 거울을 매개로 스티븐과 블룸이 서로를 바라보는 이 장면은 두 인물 사이의 부자관계를 암시한다.

-1. 3837 디그넬부인의 등장은 물론 이 부분의 주제인 “악처”의 예로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언급되는 모든 말들이 직접 등장인물이 되어 등장하는 써시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하자면, 3833행에서 조위가 “Before you’re twice married and once a widower”라고 언급했기에 그 말 중 widow가 그대로 육화되어 디그넘부인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제 81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동 106호

일시: 2010. 10. 30.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3895 ~ 4084

참석자: 김상욱, 이영심, 김종진, 이종일, 홍덕선, 길혜령, 강서정, 손승희, 김석
서울대학교 학부생들 (박래현, 정진이, 이원웅, 정병길, 이주영, 강태승,
권동욱, 유상근, 노세진, 김종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생 (이나현), 세
종대학교 대학원생 (지병원, 박종엽, 김인옥, 김민경, 양진이, 최현주, 안
선영, 김영숙, 김재선)

<발제>

1. 3896-3983

1. 매춘부들이 브라보 프랑스어라고 외치자 스티븐은 머리를 돌린 채 큰소리로 웃으며 쩡그리면 자신을 치면서 웃음이 대성공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매춘부와 유사한 천사, 악환과 유사한 사제들, 근사하게 웃을 입을 고급 창녀 등을 언급한다. 그는 양면 생고무상 여자 또는 실물크기의 처녀 나체상들에 매우 호색적인 50번의 키스 등을 언급한다. 스티븐은 거울 속에서 그녀를 타는 모든 자세를 지켜보기 위해 신사들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음경(작품)과 오플렛을 언급하자, 벨라는 그 부분이 너무나 웃기다는 반응을 보인다.

- a. do you are fond better what belongs they moderns pleasure turpitude(비열함) of old mans? (3903-4) (문장구조 분석과 해석)
- b. Enter, gentleman to see in mirror every positions trapezes all that machine there besides also if desire act awfully bestial butcher's body pollutes in warm veal liver or omlet on the belly *piece de Shakespeare*. (3907-9)(문장구조와 해석)
- c. 스티븐은 *piece de Shakespeare*를 언급하는데, 여기서 Shakespeare는 어떤 맥락으로 언급되고 있는가?
- d. 이 부분을 스티븐이 프랑스를 특이한 매춘 행위와 기괴한 자위 행위로 연관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측면을 종교에 대한 비판에 결부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2. 스티븐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I love you, sir 3914**)(?) 영어로 ‘쌍방화친 협상’을 위해 말해달라고 하면서 워털루와 수세 변소 등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집게손가락을 들어올린다. 벨라는 계속 오물렛을 반복하고 매춘부들은 양코르를 외친다. 스티븐은 간밤에 수박에 관한 꿈을 꾸었다고 말하자, 조위는 해외로 가서 외국의 여자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 린치를 아내를 찾기 위해 세계로 가라고 하고, 플로리는 꿈을 반대라고 말한다.

- a. Waterloo, Watercloset, Watermelon 등의 연상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Water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3. 스티븐은 자신이 꿈을 꾸 곳이 바로 이 곳 매춘가였다고 하면서 Serpentine avenue에서 마왕이 자신에게 땅딸막한 과부를 보여주었다고 말하면서 붉은 카펫이 깔린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 이 때 블룸이 그에게 다가가지만, 스티븐은 자신의 꿈속에서 날았고 적은 자신의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Pater!(아버지) 자유(Free)!라고 외친다.

- a. Stephen이 이야기하는 꿈 내용에서 그 날았다고 언급하는 부분과 외침소리,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자 등장한 Simon Dedalus가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Portrait*의 디덜러스의 신화와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러한 측면을 삽입하는 의도와 그 효과는 무엇인지?
- b. 꿈이 중요한 모티브인데, 그의 꿈의 내용이 하필 매춘가에서 과부를 보게 되는 것인지?

4. 블룸이 계속 말을 걸려고 시도하지만, 스티븐은 Break my spirit, will he?(여기서 he는 그의 아버지인지?) 라고 말하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독수리 발톱을 날카롭게 하면서 Hola! Hillyho!라고 외치자, Simon이 같은 소리로 응답하면서 약간 졸린 듯한 모습으로 이내 등장한다. 그는 육중한 대머리 독수리의 날개로 공기를 가르며 급강하하고 회전하면서 경고의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들고 자신의 가문의 문장기를 휘날리라고 말한다.

- a. 여기서 보여지는 스티븐과 사이먼 디덜러스의 관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가부장적이고 권위와 부담을 지우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인지?)

5. 이어지는 지문에서는 벽지의 업상체와 공간이 빠르게 열 지어 지나가고 은신처에서 빠져나온 여우가 할머니를 묻고는 오소리 구멍을 찾아서 빠르게 달려간다. 그 뒤를 사냥개 무리가 뒤쫓고 워드 유니온(아일랜드 사냥협회)이 열을 올리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경마정보 염탐꾼들과 마권업자들의 귀청을 찢는 외침소리가 들린다. 이어서 경마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외침소리가 등장한다. 군중은 그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고 경마장에서 여러 말들이 달리는 모습이 지문으로 설명된다.

- a. 다시 등장한 할머니를 묻는 여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b. 사냥 장면과 경마장의 모습의 삽입과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c. 업상체와 공간이 시골길을 빠르게 열지어 나간다는 지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러한 지문을 삽입한 효과는 무엇인지?

2. 3984-4084

1. 오렌지당원과 Garret Deasy, 그리고 녹색당원 등이 등장하고 Private Carr, Private Compton과 Cissy Caffrey가 창문 밑에서 불협화음으로 노래하면서 지나가자, 스티븐이 그들을 부른다. 조위는 손을 들고서 멈추라고 소리치지만 이제 명은 계속 노래하고 조위는 박수를 치면서 춤추라고 소리친다. 그리고는 자동피아노로 달려가면서 2펜스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린치가 그녀에게 동전을 건넨다. 스티븐은 조금하게 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면서 재촉한다. 자신의 지팡이를 찾더니 피아노로 달려가 그것은 집고는 3박자를 맞춘다.

- a. 친영단체인 오렌지 당원, 이에 반대되는 녹색당이 등장하고 영국인 병사들

이 등장하는 것은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의 정치적인 측면을 다시 끌고 들어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지?

2. 조위가 2페니를 동전구멍에 넣자, 금빛, 분홍빛, 보라색 빛이 나오고 북이 왈츠를 낮게 가르릉소리를 낸다(purr). Goodwin 교수나 나비넥타이 가발을 쓰고 궁정 복을 입고 허리가 완전히 접힌 채로 방을 아장아장 가로 질러서 피아노용 의자에 앉아서 건반을 친다. 조위는 계속해서 춤추기를 권하면서 테이블을 치우라고 한다. 변하는 조명이 달린 피아노가 왈츠타임에 My Girl's Yorkshire Girl의 서곡을 연주한다. 스티븐은 지팡이를 테이블 위로 던지고 조위의 허리를 붙잡는다. 플로리와 벨라는 테이블을 벽난로 쪽으로 밀친다. 스티븐은 과장된 우아함으로 조위를 팔로 감싸고서 왈츠를 추면서 방을 돈다. 불륨은 물러서 있다. 우아한 팔에서 떨어지는 소매자락이 하얀 꽃모양의 우두자국을 드러낸다.

a. 스티븐이 조위와 춤추는 것을 그와 매춘부와의 성행위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는지?

3. Maginni 교수가 무용수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더블린식의 무용이 아니라 대륙의 무용 방식인 Katty Lanner step을 따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춤을 춘다. 서곡이 멈추자 Goldwin 교수가 허공에 손을 치고 쪼글쪼글 가라앉는다. 스티븐과 조위는 강해진 왈츠 곡속에서 자유롭게 돈다. 조명이 변한다. 지문은 Ponchielli의 오페라 지오콘타의 시간의 무도의 4장 내용을 말한다. 즉, 아침의 시간이 등장하여 춤을 추고 정오의 시간들이 인물들로서 등장하여 태양을 잡는다는 내용이다. 매기니는 춤동작을 지시하고 아침의 시간과 정오의 시간은 왈츠춤을 추면서 시간과 춤 상대들과의 수작이 이어지고 피아노는 젊은이들이 여자들의 허리를 가졌음을 이야기한다. 이어 황혼의 시간이 등장하고 밤의 시간들은 슬그머니 사라진다.

a. 아침의 시간과 정오, 그리고 황혼과 밤의 시간들을 의인화시켜 등장시킴으로써 시간의 모티프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

b. 무용, 춤을 도입하여 강조하고자하는 측면은 무엇인지?

<토론 및 의견>

<서울대 학부생들의 의견>

- 22년 옥스포드 판으로 530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아마 토론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5장만 보고 이걸 소설이 아닌 DRAMA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15장만 그렇게 된 구성이고 다른 장들은 소설에 가깝긴 한데, 또 장들마다 형식이 차이가 있더군요. 그리고 극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화자나 내러티브의 말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프랑스의 문법구조에 영어를 덮음으로서 영국과 프랑스의 협작을 언어로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을 조이스가 의도했고 사용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주의깊게 보고 밝혀낸 독회 참가자들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불협작과 더불어 Waterloo전투가 나오고, 그것이 다시 watercloset(화장실)에 이어 watermelon, 물이 나오는 멜론 즉 가슴 혹은 여성의 둔부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을 단어들로 연상이 이루어지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꿈의 구조에서의 치환 혹은 환유의 과정과 흡사하여 이 소설의 구성 자체가 마치 무의식의 흐름같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스티븐이 Pater를 부르는 장면에서 육체의 아버지, 현실의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툭 땅으로 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신화와 연결이 되는 것들도 흥미로웠고, 뒷 부분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달려간다고 묘사됨으로서 추상적인 존재자들을 현실적인 존재자들로 바꿔치기해버리는 것도 매우매우 흥미롭습니다. 한 줄 한 줄 결코 허투루 읽을 수 없는 소설입니다.

-저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므로, 솔직히 울리시즈 독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조이스, 부럽다.’

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작가는 이미 죽고 없는데, 머나먼 동양의 한 나라에서, 게다가 한 명도 아닌 십수명이, 8년 동안 어떤 작품을 읽어왔고 앞으로 또 읽어나갈 것임은 작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조이스, 부럽다.’

그리고 독회의 아름다운 분위기! 그 분위기를 ‘아름답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의 평균연령이 매우 높다. 솔직히 벌써 공부 가 지겨워지는 사람으로서 독회 참가자 분들께 대단히 감동받았다. 둘째, 진지했다. 대화 및 토론이 오고가는 방식은 비형식적이었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결코 진지함과 품격을 잃지 않았다. 그 많은 참가자 중에 조는 사람이 나 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놀랍다. 셋째, 열려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의 생각을 전방위로 공유했으며, 학부생들을 기꺼이 앞줄에 앉혀주시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

아직까지 올리시즈가 위대한 소설인지 아닌지 파악이 잘 안된다. 앞으로도 안 될 것 같다. 다만 이 수많은 분들이 가까이 8년을 바치신 소설이라면, 읽어보긴 해야할 것 같다. 그리고 ‘조이스, 부럽다.’

-언제 봐도 참으로 난해한 올리시즈입니다. ^^;;; 다행히 필기를 조금 해놔서 제가 뭘 말하고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프랑스어의 구조와 비평상의 특징인 명사나열 구조의 반영일 수 있다는 점, 햄릿이 여자였다고 주장하는 비평이 있다는 점, 물푸레 나무가 고대 희랍 서사시 세계에서 창을 짚는 나무로 사용된다는 점, 5장에서 제국성과 여성의 지위가 약간 암시되는 부분, 중세에 유행한 죽음 관련 도상 중 하나였던 죽음의 무도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제시하는 견해들을 들으며 느낀 것은 우선 올리시즈 내에서는 앞에 제시되었던게 반복되고 변주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의 의식 속 세계가 펼쳐지는 만큼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그것이 어떤 거대한 순환을 암시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뭔가를 깨달을 듯 말 듯한 느낌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구시대와 신시대의 관계, 구질서와 신질서의 관계, 삶과 죽음, 흡수와 배설 등은 다같이 어떤 ‘흐름’을 암시하는데, 이날 읽은 부분에서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미지, 물의 이미지, 절정과 죽음의 이미지, 배설의 이미지 등이 나와서 <올리시즈>가 어떤 진리라도 같은 거대한 순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대의 텔레마코스, 중세의 햄릿, 근대의 스티븐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 와중에 적절히 변주되면서 마찬가지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근대의 스티븐과 블룸은 그들의 원형이 되는 고대나 중세세계의 인물들과 달리 소위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보였던, 혹은 보이는 조건들’에 대해 저항하고 경계를 허무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전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중시하던 가치에 대한 조이스의 생각 정리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드러나야 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성 정체성에서부터 세속적 권위의 정점에 선 자들의 위세에 이르기까지, 키르케 장에서는 피투성을 지닌 인간들이 부딪히는 거의 모든 선결조건들이 뒤틀리고 희미해지고 역전됩니다. 마치 고대에 왕이 하루 동안 거지 노릇을 하던 축제일 마냥 세상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환상과 현실의 경계마저 허물어집니다. 죽음의 무도도 이러한

대순환과 경계 허물기에 기여하는 도상이었다는 생각에, 이쪽으로 페이지를 써보고 싶은 마음도 살짝 들었지만, 이 난해한 텍스트를 관통하는 어떤 주제를 캐내려면 고생을 뺄까하게 해야겠다는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조이스가 입센을 좋아했다고 지적하신 분도 계셨는데, 입센의 명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떤 사상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한번이라도 모순에 부딪히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합니다. 조이스는 근대와 현대 혹은 탈근대(물론 이게 작위적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의 경계를 살아가면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감수성으로 어떤 근대 이후의 세계와 문학,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와중에 순환하는 어떤 동양철학의 극의와도 같은 선의 세계, 모순이 흘러넘치는 세계 그 자체를 어떻게든 언어화하려고 시도한 건 아닐까하는 다소 망상에 가까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명언집이나 작품들을 읽어보면 천재 작가들은 약간 이런 기질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테도 “모순이 들끓는 곳, 그곳을 나는 즐겨 배회하고 싶다”는 말을 남겼더군요... 율리시스의 난해함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야 말로 유일무이한 제대로 된 독법이 아닐까하고 생각하고 보니 이날 하루도 참 보람차게 보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석을 허락해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오랜 시간 동안 율리시스를 읽으신 선생님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자리라고 들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워서 8년 동안 읽고 계신 건지 아니면 조이스를 연구하고 도를 닦는 사람의 마음으로 읽고 계신 건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경험, 특히 율리시스를 단순히 조이스라는 작가의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결부시켜서 말씀해주는 부분들이 인상깊었고 정말 문학을 즐기고 계시는구나 싶은 마음에 저도 율리시스를 좀 더 재미있게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 늦었지만 후기 올립니다..👓

일단 율리시스의 악명이 워낙 자자한지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었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모임에서도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와 율리시스에 대한 경계심을 좀 없앨 수 있었어요.

저는 율리시스에 나온 시공간의 개념이 재미있었는데 아침과 점심 시간이 함께 어울려 왈츠를 추는 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체 왜 이런 사소한 데에 집착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T_T)

아침, 점심, 저녁, 밤은 분명 맞물리는 구석이 있지만 섞여 있지 않고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아침 시간과 점심 시간이 꼬리잡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려 왈츠를 춥니다. 게다가 의인화되어 팔과 손을 가지고 있는 등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기도 하고.. 만약 이 부분을 시간의 경계가 흐트러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나 보르헤스의 단편들에 나오는 시간 개념(시간이 그저 흘러가지 않고 기형적으로 여러 차원에 동시에 존재하거나 뒤틀리는)과도 연관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침과 점심이 ‘함께’ 있다는 게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뿐 아니라 수많은 무더기들이 (음식, 동물, 색깔 따위의 수많은 무더기들! 수많은!) 한 데 뭉쳐 나오오고 병사 셋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실사 그것이 불협화음이더라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대화는 여럿이 함께 있어야 할 수 있지요 비록 내용은 파편화되어있을지라도!)

참고로 스티븐이 중간에 Pas seul!이라고 외치는데 이게 솔로댄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와중에 스티븐이 툭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4151) The couples fall aside. Stephen shirls giddily. Room whirls back. Eyes closed he totters. Red rails fly spacewards. Stars all around suns turn roundabout. Bright midges dance on walls. he stops dead. 또, 짝을 지었던 것들이 떨어져나가며 순간적으로 스티븐이 멈춰 서는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홀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되어있는 건 아닐까요? - 제임스 조이스의 울리시스를 접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앞부분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15장을 읽었더니 매우 난해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뒤편 앞부분을 알고 읽었더라도 이해가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겠지요.) 독회 전에 읽어봤을 때에는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한글해석본을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나타나고, 여우가 할머니를 문고, 오렌지 당원 & 녹색당이 등장하고, 시간들이 춤을 추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일 울리시스 독회에서 대략적인 개요도 듣고, 혼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함

축된 의미나 상징들도 다 중요하고 신기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특정 이미지가 모티브의 연결고리로서 사용된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 예로 개별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이미지들이 “field”를 연결고리로 이어지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 이었습니다. 독수리가 새겨진 기의 배경인 field가 여우가 달리는 “country”로 이어지고, 또 사냥꾼들이 여우의 뒤를 쫓아 field를 달리고, field를 배경으로 경마장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또한 독수리부터 경마장의 모습까지 쫓고 쫓기며 질주하는 이미지는 Stephen이 느끼는 감정상태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매우 와 와 닿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그 경계에서 의식과 이미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이날 다루었던 15장 부분에서는 Stephen이 주로 등장했는데, 그의 대사에서 나타난 비문법적인 말들이 영어와 불어의 역사적 사건을 상징(waterloo, 영불협상 등)한다는 점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특히 단어는 영어의 단어이나 문장구조는 프랑스어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Joyce에게 있어 영어는 acquired language라는 점과 작품 속에 프랑스어가 상당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Stephen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허문다는 점에서 작가가 일부러 문장구조를 무너뜨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들을 단어의 불명확한 나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대화가 아니라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이 의견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Waterloo-Watercloset-Watermelon으로 이어지는 것도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water’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waterloo는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한 상징과 암시가 들어있고, watermelon의 경우에는 stephen의 꿈에서 등장했었으며 작품 후반부에 molly의 신체를 watermelon으로 묘사했다는 설명을 듣고 성적인 암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5장 일부만 보았지만 독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watermelon이 뒤에서도 언급되고, 할머니를 묻은 여우도 앞부분에서 수수께끼로 나왔고, 꿈에서 본 fussy widow 또한 앞부분에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고, 이를 다 염두에 두고 쓴 제임스 조이스는 정말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15장을 읽었을 때 Stephen이 “Pater! Free!”라고 외치는 부분을 보고 제일 먼저 Walter Pater를 떠올렸는데, 토론 중에 조이스가 Pater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신기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Stephen이 Pater를 외치니 영똥하게 아버지 Simon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독회 후에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Stephen의 Pater가 신(God)으로서 아버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아버지 Bloom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신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사이먼이 나타납니다. “Pater!” 직전에 “World without end”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셰익스피어의 소넷에서 자신의 시가 영원할 것이라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Pater가 예술의 아버지를 상징한다는 해석 또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3시간 남짓 되는 시간동안 많은 이야기와 해석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율리시스를 시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체 작품을 읽은 것도 아니고 고작 몇 페이지를 읽었을 뿐이지만, 율리시스는 *Women in Love* 보다 더 읽기 어렵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 After attending the *Ulysses* conference last summer, I did not have the chance to open this book again until the day before the latest conference. It felt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first time! Unlike last time, the very miniscule knowledge that I have of this book gave me a sort of an opening on how to approach the reading. Of course, I still had no clue what was going on but compared to last time... I guess I can say, I felt more comfortable with the text. As for the conference, the second time around felt more comfortable as well. Reading *Ulysses* the second time, I made this habit of trying to prove to myself that Joyce was not a complete nutjob and everything that he wrote was completely intentional. Only we have to figure out and perceive things from his perspective. The idea about the sentences being written in a French syntax was extremely amusing. It made sense to why the structure of the sentences were so distorted. If the idea of the french syntax was true, then there would have been those who tried to arrange the sentences in this manner and the puzzle to *Ulysses*. Hopefully, we'll be able to attend the next conference as well!! I'm looking forward to it and also the remainder of this semester >_<!!

- 늦게 도착해서 좀 해매긴 했지만 이야기를 따라갈수록 흥미가 느껴지는 시간이

었습니다.

특히, 작품을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해내는 모습이 흥미로웠는데 어떤 분은 작가의 생애에 초점을 두고 어떤 분은 작품 자체나 정치적인 이슈에 집중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답이랑게 없겠지만, 모두 자신의 시각에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들을 접해나간다면 자신의 시각에다 더해 시야도 넓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가보다는 작품 자체에 집중하려는 편인데, 그 때문에 작가의 생애와 연관시키려는 분의 의견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심도있게 오가는 장면을 접한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웠는데, 새삼 이런 작품을 써낸 제임스 조이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울리시스 독회 정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점이 아쉽네요. 좀 더 공부하고 나서 다음 달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p. 539의 Zoe 부분에서 5줄 아래에 “Her sleeve, falling from gracing arms, reveals a white fleshflower of vaccination.”에서 white fleshflower of vaccination이 뭘까요? 말 그대로 예방접종 자국을 나타내는 것인지.. etext를 찾아보니 앞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이 안나옵니다. 춤을 추는 장면이 묘사되는 와중에 돌연 이런 묘사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독회 중간에 한 분이 Joyce가 Ibsen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언급을 잠깐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우선 Ibsen이 생소하신 학생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Henrik Ibsen은 19세기에 활동하였던 노르웨이 출신 극작가로 ‘현대영미희곡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의 작품은 당시에 굉장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엄격하고 전형적인 가정 생활을 보여줬던 기존의 유럽 극들과 달리 Ibsen의 희곡은 극 사실주의적인 묘사로 그 뒤의 ‘불편한 진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A Doll’s House는 당시에 당연 scandalous 했습니다. 반면 Joyce는 Ibsen을 존경하고 그 작품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Ibsen의 73번째 생일날 존경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 편지는 너무 길어서 글 끝에 첨부하겠으니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A Doll's House와 Ulysses는 몇 가지 공통점을 보입니다.

(1) 남녀의 사회적 역할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도전)

두 작품의 주인공 모두 전통적인 가부장적 집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저버림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challenge하고 있습니다. A Doll's House의 주인공 노라는 남편과 아이들을 떠나고, 율리시스의 Molly는 남편을 두고 Blazes Boylan과 바람을 핍니다. 가족을 버리는 행위나 infidelity 모두 현대 사회에서 타부시 되는 것들이지요. feminism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전에 두 작가 모두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의문점을 던졌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2) 역할의 전환

이런 공통점 외에도 A Doll's House의 주인공 Nora와 Torvald, 율리시스의 두 캐릭터 Molly와 Bloom의 복잡한 관계도 “role reversal”의 관점에서 주목해볼만한 것 같습니다.(사회적 gender stereotype에 따라 ‘감성적인 면’은 여성적인 특성이라는 전제하에) 율리시스의 Bloom은 몰리보다 더 감정적으로 약한 면을 보입니다. 블룸은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들의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반면 몰리는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또 곳곳에 블룸의 모호한 sexuality도 제시됩니다. (박물관에서 조각상의 뒤쪽을 감상하는 장면) 블룸의 센티멘탈한 면이나 불분명한 섹슈얼리티, 그리고 몰리의 바람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도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이 전환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몇 페이지만 집중 분석하겠지만 전체적인 주제나 맥락을 알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즐 율리시스” 합시다.

· James Joyce가 Ibsen에게 보낸 편지 (길어요)

Honoured Sir,

I write to you to give you greeting on your seventy-third birthday and to join my voice to those of your well-wishers in all lands. You may remember that shortly after the publication of your latest play ‘When We Dead Awaken’, an appreciation of it appeared in one of the English reviews—The Fortnightly Review—over my name. I know that you have seen it because some short time afterwards Mr. William Archer wrote to me and told me that in a letter he had from you some days before, you had written, ‘I have read or rather spelled out a review in the Fortnightly Review by Mr.

James Joyce which is very benevolent and for which I should greatly like to thank the author if only I had sufficient knowledge of the language.' (My own knowledge of your language is not, as you see, great but I trust you will be able to decipher my meaning.) I can hardly tell you how moved I was by your message. I am a young, a very young man, and perhaps the telling of such tricks of the nerves will make you smile. But I am sure if you go back along your own life to the time when you were an undergraduate at the University as I am, and if you think what it would have meant to you to have earned a word from one who held so high a place in your esteem as you hold in mine, you will understand my feeling. One thing only I regret, namely, that an immature and hasty article should have met your eye, rather than something better and worthier of your praise. There may not have been any wilful stupidity in it, but truly I can say no more. It may annoy you to have your work at the mercy of striplings but I am sure you would prefer even hotheadedness to nerveless and 'cultured' paradoxes.

What shall I say more? I have sounded your name defiantly through a college where it was either unknown or known faintly and darkly. I have claimed for you your rightful place in the history of the drama. [Ed: Ha! What an ego! 18 years old!] I have shown what, as it seemed to me, was your highest excellence—your lofty impersonal power. Your minor claims—your satire, your technique and orchestral harmony—these, too, I advanced. Do not think me a hero-worshipper. I am not so. And when I spoke of you, in debating-societies, and so forth, I enforced attention by no futile ranting.

But we always keep the dearest things to ourselves. I did not tell them what bound me closest to you. I did not say how what I could discern dimly of your life was my pride to see, how your battles inspired me—not the obvious material battles but those that were fought and won behind your forehead—how your wilful resolution to wrest the secret from life gave me heart, and how in your absolute indifference to public canons of art, friends and shibboleths you walked in the light of inward heroism. And this is what I write to you of now.

Your work on earth draws to a close and you are near the silence. It is growing dark for you.

Many write of such things, but they do not know. You have only opened the way—though you have gone as far as you could upon it—to the end of 'John Gabriel Borkman' and its spiritual truth—for your last play stands, I take it, apart. But I am

sure that higher and holier enlightenment lies—onward.

As one of the young generation for whom you have spoken I give you greeting—not humbly, because I am obscure and you in the glare, not sadly because you are an old man and I a young man, not presumptuously, nor sentimentally—but joyfully, with hope and with love, I give you greeting.

Faithfully yours,
James A. Joyce

-어렸을 때부터 들인 습관인지 몰라도, 저는 늘 문학을 읽을 때 다소 감정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텍스트 자체를 즐기면서 등장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학을 감상하는 바람직한 태도 중 하나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텍스트 너머를 보는 깊은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음을 늘 느껴왔습니다. 이번에 유두선 교수님의 현대영국소설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방향의 읽기를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랜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한참 모자라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갈 수 있다는 데서 지적 만족감을 얻는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의 율리시스 독회도 제게 다시 한 번 그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자리였습니다. 워낙 어려운 소설이라는 평이 자자했던 만큼, 독회에 앞서 미리 발제 부분을 읽어 보면서부터 엄청난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준거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파악이 안 되더군요. 때문에 독회에 나가더라도 내가 과연 토의 내용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참석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회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신화와 섹슈얼리티, 문법 구조와 같은 다양한 틀을 인용하여 텍스트를 독해하시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텍스트를 넘나드는 통찰의 시각이 주는 지적 호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가의 인생이나 당시 시대 상황과 같은 요소들이 subtext와 context의 의미를 비추는 데 얽혀들어가는 것은 참 놀라웠고 심지어 살짝 짜릿한 충격마저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글쎄요, 제대로 읽어보기도 전이지만, 주로 텍스트의 겉만 읽어온 제게 <율리시스>가 ‘좋은’ 소설로 느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독회에 참석함으로써 앞으로 이 소설을 ‘좋은’ 소설로서 읽어나갈 수 있는 ‘다른 읽기’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제시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익한 자리였고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월 18일 울리시스 독회 이후 두번째로 독회에 참가하였는데 기존의 구성원분들과 더불어 서울대 학부생들과 세종대 대학원생들까지 함께 참가하여 더욱 활기찬 분위기로 토론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읽은 부분은 15장 ‘Circe’ 중 Stephen이 중심인물이 되어 소설이 진행되는 부분이었는데 혼자서 읽을 때와는 달리 발제를 듣기 전에 오디오 형식으로 먼저 내용을 들으니 훨씬 더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장이 fantasy drama 형식으로 구성된 파트이고 또한 음악과 춤이 함께 등장하는 부분인만큼 오디오는 더욱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Stephen이 프랑스어와 영어를 가지고 교묘하게 유희하는 부분이나 Maginni선생이 지시하는 부분도 더욱 생동감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읽을 때마다 생소한 경마 용어나 경매 용어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독회에서 여러 용어의 의미를 가르쳐주셔서 해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Joyce의 편지에 관련된 일화와 그가 춤과 음악에 정통했었다는 부가적인 정보 또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작가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교묘하게 장난을 치는 부분은 Stephen의 비문법적인 말과 더불어 Simon이 가문의 문장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An eagle gules volant in a field argent displayed’

여기서 volant와 argent은 둘 다 라틴어 어원으로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쓰이고 있는 말이고 또한 이 문장에서도 앞의 문장들과 더불어 프랑스어의 어순(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을 끌어들이 재밌는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Stephen과 그의 아버지(신체적 아버지, 정신적 아버지 포함)에 대한 토론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룰 부분의 막바지에 있던 Stephen의 어머니에 관련된 논의를 많이 못들어와서 아쉬웠습니다. ‘Dance of death’에 관한 토론도 더 해보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구요.

그렇지만 Ulysses와 같은 난해한 작품을 읽는 데에 있어서 close-reading의 중

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고, 다양한 해석과 의견들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주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82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동 106호

일시: 2010. 12. 18.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4085 ~ 4361

참석자: 김길중, 이영심, 김종건, 홍덕선, 강서정, 손승희, 김석, 김경숙, 최석무, 박진훈, 김상욱

서울대학교 학부생들(강태승, 권동욱, 유상근, 추진아, 서광엽), 세종대학교 대학원생(양진이, 최현주, 김재선)

<발제>

1. 줄거리 및 중심 사건

앞 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Maginni 교수는 무용 동작에 대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고, 각각의 인물들은 계속해서 춤을 추다가 빙빙 도는 춤 동작 때문에 다소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스티븐이 “죽음의 무도”(dance of death 4139)라고 소리치자, 벽멀리건과 스티븐의 죽은 어머니가 등장한다. 멀리건은 에피소드 1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스티븐을 비판하고 스티븐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어머니에게 자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한 때는 아름다운 Mary Goulding이었다는 것과,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 ‘Love’s bitter mystery’라는 노래를 스티븐이 불러주었던 것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 그가 반응을 하지 않자 그녀는 어머니로서 자신이 그

에게 쏟았던 온갖 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지옥불을 언급하면서 조심하라 (Beware)고 반복해서 말한다. 하지만 스티븐은 단호하게 Non serviam(섬기지 않겠다 4228)라고 말하자, 그의 어머니는 그를 지옥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No를 세 번 반복하고(4235) 또 Nothung(마도)라고 말한다.(4242) 이어서 그는 자신의 물푸레나무 지팡이로 샹들리에를 내리치고, 시간의 마지막 불꽃이 도약하고, 뒤따르는 어둠 속에서 모든 공간의 폐허와 깨어진 유리조각 넘어지는 석조건물등이 묘사된다. 블룸은 샹들리에 값을 물러내라는 벨라와 실갱이를 벌이고 스티븐이 트리니티 대학생이라는 것과 대학 부총장의 조카라는 것을 내세우고 또 옥스퍼드에 있는 벨라의 아들 운운하면서 1실링으로 대충 얼버무린다. 그 때 소란이 났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그쪽으로 서둘러 간다. 문가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매춘부들과, 삼마차에서 내리려는 찰라의 Corney Kellerher와 호색한들이 있고, 창녀들은 남남 키스 소리를 내고, 블룸이 황급히 달려가자, 물푸레 나무가 그의 걸음걸이를 표시하고, 한 무리의 사냥개가 블룸을 쫓기 시작한다. 그에게 자갈, 감자, 계란들이 투척된다. 그리고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그 추격에 합류한다.

2. 토론해 볼 문제

- 스티븐의 의식에서 가장 괴로운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역시 어머니의 죽음 과정에서 자신이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져도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측면이 함축하는 바를 더욱 심도깊게 논의해 봅시다.

- 춤과 음악 등은 더블린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일부로 여겨진다. 이 장면에서도 계속해서 춤을 추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으며, 결국 ‘죽음의 무도’라는 단어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 지점에서는 죽음이 중요한 모티브로 전환된다. 울리시즈 전체와, 또 ‘키르케’에서의 죽음의 의미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해 봅시다.

- 스피븐이 나무 지팡이로 샹들리에를 내리치는 장면은 매우 극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 이 부분에서 스티븐의 어머니가 상당히 비중있게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티븐과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 사냥개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추격전이 펼쳐지고 엄청난 인원의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장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토론해 봅시다.

<토론 및 의견>

<이종일>

-1. 4139. Dance of death: ‘죽음의 무도회’는 원래 죽음이 산 자들에게 끼치는 힘이 나타난 것이란 의미이다. 그러나 『율리시스』의 이 대목에서는 다양한 함축적 암시가 깃들어 있다. 텍스트의 직접적인 맥락에서 스티븐의 어머니가 스티븐에게 불러일으키는 ‘Agenbite of Inwit’가 바로 그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율리시스』에서 King Hamlet이 Hamlet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기도 하고 성령(holy spirit)이기도 하며 결국엔 스티븐의 셰익스피어 이론에서 귀결되는 것처럼 작품 뒤에 숨은 작가(또는 ‘the arranger’)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침묵의 미학(aesthetic of silence)’, 또는 ‘부재의 미학(aesthetic of absence)’이 되기도 한다. 바로 뒤에 나오는 “She[Mary Gouilding] fixes her bluecircled hollow eyesockets on Stephen and opens her toothless mouth uttering a silent word. A choir of virgins and confessors sing voicelessly.”(15. 4160-62. My underline) 참조. 또한 스티븐의 어머니가 한 말 “I pray for you in my other world”(l. 4202) 역시 world를 word로 바꾸어 보면 “my other word” 역시 이러한 복화술 기법에 결부시킬 수 있겠다.

-1. 4227-28. With me all or not at all: 아직 solipsism에 빠져 있는 Stephen의 이분법적 사고를 단적으로 드러내는데, 바로 이러한 미숙한 정신의 한계가 전등을 쳐서 ‘빛(light)’을 파괴하려는 그의 시도를 실패로 이끈다. Stephen이 지팡이(일종의 spear)를 휘둘러 전등을 가격(“shake spear[e]”)한 행동은 모든 지배 담론을 파괴하기 위해 “magic sword”를 사용한, 그러서는 “needful”한 시도인데 잠시 불이 꺼짐으로써 그는 그 시도가 성공한 줄 알고 자리를 뜬다. 그러나 이내 Bloom에 의해 밝혀지듯이 그가 한 행동은 전등의 갓(shade)을 손상한 정도로서, 이것은 Stephen이 빛을 깨기는커녕 오히려 어둠(shade)을 슬쩍 건드린 수준, 즉 “nothing”에 불과하다. Stephen과 달리 경험으로 무장되어 있는 Bloom은 ‘빛’을 복구함과 동시에 실제 손상당한 것이 shade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고 이 사실은 그가 빛과 어둠 사이의 관계가 이분법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작용, 또는 상통의 관계임을 통찰하고 있다는 예시로 볼 수 있겠다. 덧붙여 이 대목에서 Bloom이 Stephen 대신 전등갓 값을 치러준 실천적인 행동은 Bloomsday에 그가 행한 몇 가지 선행(caritas)중 하나이다.

-l. 4354-55. Miss Dubedatandshedidbedad. 얼핏 gibberish에 불과해 보이는 이 말을 Miss Du-be-dat-and-she-did-be-dad로 음절을 끊어 살펴보면 음성학적으로 Miss Do-Be-That-and-She-Did-Be-That(그것이 되는 일을 하는 처녀와 그것이 되는 일을 한 처녀)로 풀이될 수 있지 않을까?

-l. 4433. My centre of gravity is displaced. Decentring의 개념을 잘 나타내주는 멋진 표현 아닌가? 그렇다고 이 작품이 전적으로 decentring의 논리에 지배되어 있다는 말은 아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Struggle for life is the law of existence”라는 문장에서 “struggle for life”가 kinetic principle을 나타내는 decentring의 양상이라면, “law of existence”는 static principle을 나타내는 centring의 양상이다. 그야말로 Bidy the Clap의 말대로 “He expresses himself with such marked refinement of phraseology”(l. 4443)인 것이다.

<최석무>

-Maginni의 지시에 따라 춤을 추는 장면은 스티븐에게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을 직감한다. 그는 “Pas seul”(4120)이라고 솔로로 춤을 출 것을 제시한다. 그와 달리 다른 인물들은 춤을 추면서 Bloombella, Kittylynch, Florryzoe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 일체가 된다. 예술가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스티븐이 자신이 추던 이 춤을 “Dance of death”(4139)라고 말한다. “Nothung”(4242)도 공동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스티븐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아일랜드 민족주의는 스티븐이 다른 혁명 전사처럼 아일랜드를 위해 죽기를 원한다. 이에 스티븐은 Nothung(hanged의 사투리)이라고 하면서 아일랜드를 위해 순교하는 것에 반대한다.

<김경숙>

-4120행에서 자신의 물푸레나무지팡이를 들며 “Pas seul”(솔로 댄스!)을 외치는 스티븐을 어떻게 봐야 할까. 블룸과 벨라, 키티와 린치, 플로리와 조이가 짝을 이루어 왈츠를 추고 있는 와중에 스티븐은 물푸레나무지팡이와 솔로 댄스를 춘다. 이 때 지팡이는 스티븐을 다른 아일랜드인들과-스티븐의 어머니의 망령이 끊임 없이 상기시키는 조국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하여-구분시키는 차이의 기표가 된다. 후에 스티븐은 이 지팡이로 샹들리에를 부수며 “Nothung!”(4242행)이라 외치는데, “Needful”이라는 의미의 독일어인 “Nothung”은 일종의 마법의 건(magic

sword)이며 magic sword를 조이스 식으로 약간 장난을 치면 “magic’s word”가 될 수 있어서 이는 스티븐이 어머니에게서 찾고자 했던 “the word known to all men”(4192-3)에 대한 일종의 파괴행위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4183행에서 스티븐의 어머니 명령의 “More women than men in the world”는 사실 6장에서 블룸의 의식의 흐름의 일부였고, 4202행의 “I pray for you in my other world”라는 말 역시 블룸의 비밀 연인인 마사의 편지를 상기시켜, 블룸과 스티븐의 의식이 뒤섞이고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

제 83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2호

일시: 2011. 1. 15. (토) 오후 2:00-5:4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4362 ~ 4697

참석자: 김종건, 이종일, 홍덕선, 남기현, 박진훈, 김상욱, 최석무, 이영심, 김경숙,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나영이(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생)

<발제>

1. (4362-4534) 줄거리

계속해서 블룸을 잡으라는 고향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는 비계아래의 Beaver가에서 싸우고 있는 한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멈춰 서고, 스티븐은 영국 왕들인 조지 5세와 에드워드 7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아침에 Haines가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합리화하면서 했던 말, “역사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말을 읊조린다. 여기에 Private Carr와 Private Compton이 등장해서 스티븐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협박조의 말을 계속 건네는 장면이 이어진다. 영국의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측면이 스티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환기되는 장면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스위프트의 말을 인용하여 무력적인 지배에 대해서 풍자하고 자신의 술 취한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다가 영국 왕과 러시아의 짜르에 대해 말하면서 성직자들과 왕을 죽여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결국 에피소드 1에서부터 이야기했던 스티븐과 관련된 중심주제의 변주라고 할 수 있다. 블룸은 행여 스티븐이 병사들에게 곤욕을 치를까봐 그를 교수라고 둘러대면서 그를 보호하려고 시도한다. 이 때, 에드워드 7세가 소변 금지라고 쓰인 미장의 양동이를 들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여 자신을 싸움을 목격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과 악수한다. 스티븐은 현재는 특허약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조국이 자신을 위해서 죽게 하라고 말한다. 에드워드 7세는 예수의 후광을 흉내 낸 채로 하얀 대추를 인광빛의 얼굴에 가지고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무더기 위로 공중부양을 하면서 맹인들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먼지를 뿌렸다는 노래를 부른다. 역시 영국이 약자인 아일랜드 인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풍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스티븐은 녹색과 붉은 색을 언급하는데, 역시 정치적인 함축을 띠고 있다. Kevin Egan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대사를 하자, Patrice Egan은 토끼와 유사한 모습으로 스티븐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러자, 아일랜드 보수주의자들의 이름이 합쳐진 인물이 나등장하여 유대인 비하 발언을 여러 가지 언어가 섞여진 언어로 지껄인다. The Citizen이 등장하여 보다 노골적으로 영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른다.

- 이 부분에서 언급되는 영국의 작가들, 조나단 스위프트, 테니슨, 블레이크(4435에서 암시됨)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 에드워드 7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 Dolly Grey(4417)은 왜 등장한 것인지?

- 스티븐은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할지?

2. (4535-4697) 줄거리

악마의 이발사 Rumbold가 등장하여 실제로 발생했던 살인사건들을 나열하고는 밧줄을 당겨서 the croppy boy를 처형하자, 그에게서 정액이 분출된다. 그러자 두 명의 부인이 손수건으로 그것을 닦아낸다. 럼볼드는 자신이 일이 끝났다고 말하고, 에드워드 7세는 음주에 관한 노래를 읊조린다. 스티븐은 Private Carr가 자신의 돈과 목숨을 원하지만, 자신은 돈이 없다고 말한다. 이 때, 이빨 빠진 늙은 할멈

이 가슴에 감자 기근의 죽은 꽃을 달고 나타난다. 이를 본 스티븐은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 암돼지라고 소리친다.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그 늙은 노파는 자신의 집의 나쁜 매너를 가진 낯선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곡을 하면서 가난하고 늙은 아일랜드가 어떻게 견뎌 낼 것인가? 라고 스티븐에게 묻는다. 이에 스티븐은 속임수라고 반박한다. Private Carr가 스티븐을 해치려는 말을 하자, 블룸은 스티븐을 위해 변명한다. Private Compton은 스티븐을 친보어주의자라고 공격하자, 블룸은 아일랜드가 영국을 위해서 싸웠던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에 트워드 소령이 등장하고 The Citizen과 서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용맹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스티븐은 블레이크의 시를 패러디해서 매음부의 외침들이 아일랜드의 시의를 짤 것이라는 시를 말한다. 스티븐이 Cissy Caffrey의 흰 손과 붉은 입술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목소리들이 더블린이 불탄다고 소리를 지르자, 지문으로 유행 불로 타고 있는 지옥의 모습이 묘사된다. 기관총 소리, 군대의 배치, 술꾼들의 고함소리, 창녀들의 비명소리,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함소리, 각종 새들의 등장, 한밤중의 태양이 검게 변하고, 대지의 진동. 경주자들, 여직공들, 사교계의 부인들. 빗자루를 타는 마녀들. 각종 인물들의 등장. 제단석 위에 비이성의 여신인 Mina Purefoy가 나체로 족쇄를 채운 채,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 위에 성배를 얹고 누워 있다. Malachi O'Flynn 신부가 기묘한 복장으로 야영 미사를 집전하다. Mr. Hugh C Haines Love M.A가 우산을 사제의 머리 위에 씌운다.

- Rubold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Croppy Boy가 죽는 장면에서 정액의 분출은 어떤 의도로 삽입된 것인가?

- 노파가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때, 스티븐과 그녀와의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지문에서 보이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토론 및 의견>

<이종일>

-1. 4387. 이 대목에서 Sisyphus가 등장하는 맥락상의 근거는 무엇일까? 현재의 초점 인물인 Cissy와 발음이 비슷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소변보는 모티프와 관련하여 syphilis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었음.(김종건)

-I. 4388. Uropoetic은 urine과 poetic의 합성어로서 소변보는 기술이 가히 시적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판에서는 uropoetic이 아니라 neopoetic으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남기헌)

-I. 4410. governor는 속어로서 이 맥락에서는 “이 양반아”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I. 4414. Personally, I detest action.의 일차적인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행동하는 체질이 아니고 관념적인 체질이라는 의미이겠으나 신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즉 폭력 행사를 싫어한다는, 역설의 논리를 내포한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II. 4433-37. My centre of gravity is displaced.라는 천명은 decentring의 모토 같은 문장이다. 이는 뒤이은 But in here it is I must kill the priest and the king과 같은 거대담론을 부정하는 발언에 의해 뒷받침된다. 구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Struggle for life is the law of existence라는 발언도 이런 견지에서 풀이될 수 있다.

-II. 4473-74. Let my country die for me는 Stephen의 유아주의(solipsism)를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장으로 회자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앞에서도 나왔듯 거대담론을 부정하는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Damn death. Long live life!”라는 말이 이를 설명한다. death를 timelessness로 보고 life를 time으로 볼 때 말이다.

-II. 4568-69. 문장 He wants –brutish empire of his.에서 though want must be his master는 삽입어로 처리되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번역한다면, “저 친구는 아무리 챙기는 일(=제국주의적 착취)을 섬기는 자라고는 해도 그의 뭔가 야만적인 제국 영국을 위해 내 돈과 내 생명을 원하는구나” 정도가 될 듯하다.

-I. 4590. The hat trick! Where’s the third person of the Blessed Trinity?에서 hat trick, third, Trinity는 모두 3이라는 숫자의 모티브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hat trick”이란 말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것일까? 내가 아일랜드라는 국가를 견디는 재주가 기막히다는 뜻일까? 성부가 국가이고 성자가 스티븐 자신이라고 할 때 제3자인 성령은 무엇? (Gifford Note에서는 church라고 봄)

-I. 4630. 여기서 Garryowen과 God save the King은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문장에서 보통 활자체로 되어 있음(즉 연주하는 음악의 제목 또는 주제임)을 간과하기 쉽다.

-II. 4647-49. the link between nations and generations는 Cissy가 아일랜드 남자와도 어울리고 영국 남자와도 어울리기 때문에 국가를 연결하는 여자이고,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대를 연결하는 여자란 말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남자의 씨를 받아 출산을 함으로써 종족 번식을 통한 세대 연결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Hence “Speak, woman, sacred lifegiver!”

<최석무>

-블룸이 홍등가를 피해 도망가면서 회교도 왕(caliph) 처럼 묘사되는데 유대인인 그가 회교도로 묘사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Dolly Gray(4417)가 요리사의 아들에게 손수건을 흔들면서 작별인사를 하는 장면은 전쟁을 떠나는 영국 젊은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모습을 패러디하는 장면이다. 돌리는 고국에서 영국 젊은이를 기다리는 여성의 상징이다. 특히 Dolly를 여리고의 heroine(4418)의 모습으로 등장시켜 평범한 요리사의 아들도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dward VII가 “Joking Jesus”(4476)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지만, 영국 왕은 구원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갈망하는 자이다. 그는 “장님이 눈뜨도록 눈에 먼지를 던진다”(4479). 이는 세계평화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영국왕에 대한 풍자이다.

<김경숙>

-14691: 미나 뿔어포이 부인의 부풀어오른 배 위에 제단을 차리고 흑미사(Black Mass)를 드리는 장면. 물론 1장 마텔로탑에서 멀리건의 흑미사 장면에 대한 연상시키지만, 4693행의 “Father Malachi O’Flynn in a lace petticoat”라는 부분은 13장의 거티의 이미지도 더불어 상기시키는 듯하다. 앞서 13장에서 성스러운 미사를 배경으로 거티의 속옷과 스타킹을 숭배하는 블룸의 모습이 소개된 바 있다.

제 84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2호

일시: 2011. 2. 19. (토) 오후 2:00-5:40

독회진행자: 이영심

범위: *Ulysses*, Chapter 15 “Circe,” Lines 4698 ~ 끝

참석자: 김종건, 이종일, 전은경, 길혜령, 남기현, 박진훈, 손승희, 이영심, 김경숙,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발제>

1. (4698-4905)

Malachi O’Flynn 신부와 Mr Haines Love는 악마의 제단으로 가겠다는 불경한 언어들 을 주고받으며, 또한 나의 육체(My body)라고 울부짖는다. 목소리들 또한 문장이나 글자를 거꾸로 배열하고, Adonai는 God을 Dog로 발음함으로써 종교를 희화화시키고 있다. 사냥개가 계속 짖고 있으며, 병사 Car가 스티븐에게 위협이 되자, 블룸은 그를 피신시키려고 한다. 스티븐은 자신을 예수로 Lynch를 유다에 비유하는 언급을 한다. 블룸이 스티븐에게 지팡이를 건네자, 그는 지팡이는 필요 없으며, 순수한 이성의 향연이라고 말한다. 노파는 스티븐에게 단검을 건네면서 그를 제거하여 아일랜드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한다. Private Carr가 스티븐에게 돌진하여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스티븐은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누워 기절한다. 경찰이 등장하자 병사들은 스티븐이 자신들의 여자를 모욕했다고 말한다. 이에 블룸이 나서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병사들이 스티븐을 때렸다고 말하지만, 별효과가 없을 때에 Comy Kelleher가 등장하여 경찰관과 이 일을 잘 마무리 짓는다.

- 이 장면에서는 언어 플레이를 통한 종교에 대한 희화화가 두드러지는데, 이 곳의 배경이 매음굴이라는 측면과 맞물리면서 정신적인 측면을 육체적인 측면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결국은 영국인 병사들에게 스티븐이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을 장면을 통해서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를 상징적으로 극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 Comny Kelleher가 일을 처리해주는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

- 스티븐이 자신을 예수로, 린치를 유다로 비유하는 장면에서처럼, 이 텍스트에서는 스티븐과 예수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의 의미는?

2. (4906-4967)

마차에 스티븐을 태우고서 가는 길에 그를 깨우려고 노력하는 블룸. 그러나 스티븐은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로 흑표범(Black panther), 뱀파이어, 그리고 에이츠의 시의 구절 등 여러 가지 말을 내뱉는다. 블룸은 스티븐의 윗도리 단추를 풀어서 그가 숨을 잘 쉬도록 해주면서, 스티븐에 대해서 그가 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 등을 감탄하면서 다치지 않았다는 것과 돈을 지킨 것에 안도한다. 계속 스티븐의 움직임 지켜보는데, 스티븐은 그림자, 숲, 하얀 가슴, 희미한 바다라는 말을 내뱉는다. 블룸은 스티븐의 지팡이를 쥐고서 일어서서 스티븐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는 스티븐의 얼굴에서 그의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말하면서 스티븐이 내뱉은 말들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이고 있을 때, 지문에서 검은 벽을 배경으로 해서 에튼 양복을 입고 유리 구두를 신고 작은 청동 헬멧을 쓴 11살짜리 소년이 책을 들고서 천천히 등장한다. 그는 들리지 않게 책을 읽으면서 미소 지으며 페이지에 키스한다. 이를 본 블룸이 놀라서 Rudy!라고 소리치자 루디는 하던 동작을 계속한다. 그는 자주 빛의 얼굴과 양복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박혀 있고, 왼손은 가느다란 나비매듭이 달린 상아 지팡이를 쥐고 있으며 한 마리의 하얀 양이 그의 조끼 주머니에서 엿본다.

- 스티븐이 중얼거리는 내용들은 어떤 함축성을 띠고 있는가?
- 블룸이 스티븐의 모습에서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 스티븐은 왜 에이츠의 시를 읊조리는 장면은 여러번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는?
- 루디의 등장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스티븐과 블룸의 관계가 이 장에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토론 및 의견>

<이종일>

- I. 4703. blooddripping host: host가 성찬식에 쓰이는 빵(예수의 몸)인데 피(blood)가 든다 했으므로 빵과 포도주, 또는 예수의 몸과 피가 함께 등장하는 셈임.
- II. 4707-05: “찬양하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관장하시도다”라는 말이 저주 받

은 자들의 목소리에서 나올 때는 어순이 거꾸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Adonai의 “신”이라는 응답도 거꾸로 “개(Dooooo0000og)”라고 되어 있는 반면, 축복받은 자들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말은 정상적인 순서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Adonai의 응답 또한 “신(Gooooo0000od)”으로 되어 있다.

-I. 4726. He likes dialectic, the universal language: 이 대목에서 Lynch가 이 말을 하는 맥락은?

-II. 4731-35: Bloom이 Private Carr에게 위협 받고 있는 Stephen에게 “Here’s your stick”라고 하며 지팡이를 건네는 것은 “자네 물건을 챙겨서 이 자리를 뜨자”는 뜻이었겠지만, Stephen이 “Stick, no. Reason.”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팡이로 맞서라”는 의도로 받아들인 듯한데 일종의 communicational parallax라고 할 수 있겠다. (*Ulysses*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Lotus Eaters 장에서 Bloom의 “I was going to throw it away”의 발언을 Bantam Lyons가 우슴마가 Throwaway라는 경마에 대한 tip으로 오해하는 대목이다.)

참고로 이 대목에서 Stephen이 이성(reason)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Private Carr의 폭력적인 방법에 대한 이성적 대응의 입장을 얘기한 것이지만, 암암리에 직전에 환상적으로 진행되던 black mass에서 제단에 올려져 있던 Mrs Mina Purefoy가 “goddess of unreason”으로 지칭되었던 것에 대한 반대 메아리이기도 하다.

-I. 4796. whitearsed의 의미는? - 이에 대하여 엉덩이에 털도 나지 않은 하얀 엉덩이의 애송이를 가리킨다는 의견들이 나왔음.

-I. 4858. blows: “휘파람 분다”는 뜻인지? (경관들이 자리를 뜬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 데 대한 환호의 의미로) 이에 대해 “(안도의) 숨을 내쉴다”는 의미라는 의견도 있었음.

-I. 4913. With thumb and palm: 실제로 어떤 제스처인지? 독회석상에서는 제시된 대답이 없었음. 그런데 다음날 본인이 TV로 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에서 일이 잘 되었을 때 한 손의 엄지를 세우고 다른 손가락들은 모두 접는 제스처(즉 엄지와 손바닥을 보이는 손짓)를 보았음.

-II. 4920-28. Bloom이 Stephen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망설인 후에(“stands irresolute”), 처음엔 정중하게 “Mr Dedalus!”라고 불렀다가 몽유병자를 정신 차리게 할 때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른다는 속설을 떠올리고는 “Stephen!”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어도 Bloom의 입장에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진일보했음을 암시한다. 정신

적인 아들인 Stephen과 가까워진 것을 바탕으로 곧 이어 잃어버린 육체적 아들 Rudy가 등장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ll. 4944-47: 멀리서 짓는 개 소리에 Bloom이 지팡이를 짚 쥐었다 느슨하게 쥐었다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은 여차 개가 달려들 경우에 대비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자식 같은 Stephen을 구할 생각에 그로서는 보기 드물게 폭력적 방법을 고려하는 대목인 것이다.

-ll. 4951-52. swear that I always hail, ever conceal, never reveal, any part or parts, art or arts..... hail은 Freemason 회원끼리 만났을 때 수인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듯 하고, “ever conceal” 이하는 동료에 관한 정보를 결코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참고로, art and part은 공범, 범죄나 음모에의 연루를 가리키는 말이다. be[have] art and part in a plot라고 하면 “음모에 깊이 관계되다, ~에 공범이다”라는 뜻이라 함.

<양진이>

-Circe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의 신Helios과 바다의 요정의 딸Perse로, 나이가 들어도 결코 늙지 않는 늘 젊고 냉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농염한 관능미로 남자의 몸과 마음을 빼앗아 파멸에 이르게 하는 팜 파탈(femme fatale)의 전형이기도 하다. 반면, 늘 사랑을 갈구하며 자신을 떠나는 남자들을 결국 동물로 만들어 버리는 아름답지만, 냉혹하고, 너무 외로웠던 그녀는 예외적으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자 Hermes의 Moly약덕분에 마법에 걸리지 않은 Ulysses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어 아들을 낳고 Ulysses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바다 요정Siren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한다. Bloom이 Molly가 있는 집으로의 귀환하기 직전인 15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매음굴로 설정한 것과 제목을 볼 때 본 그리스 신화를 연상하게 한다.

Bloom과 Molly에서 각각 여성(女性)을 상징하는 ‘o’와 남성(男性)을 상징하는 ‘l’을 생략하면 Blom과 Moly가 남는데 ‘B’와 ‘Y’는 각각 알파벳의 양끝의 두 번째 자리에 속하여 두 단어는 양끝이 원(Circle)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lom이라는 세 글자가 앞을 뒤로 나열이 되며, 그 글자는 ‘lone’이든 단어를 연상하게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혼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영혼의 육체가 다른 육체와 일체가 되어 새로운 탄생을 하게 하는 기반에는 ‘o’와 ‘l’과 같은 성적 매력기 필요하다

며, 그것의 결합을 문자로 표현하면 ‘lonenol’되며 여기서 ‘lo’는 여성과 남성을 뜻하는 것을 제해 ‘lo(none)ol’로의 변화시켜보면 우리의 존재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된다.

사실 ‘나’라는 존재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름이다. 나의 이름으로 불릴 때 나의 존재를 인식된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면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가장 나의 존재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때는 타인의 사랑을 느끼는 시기이며, 이것은 정신적 육체적 결합인 실천을 통해 생겨난 무에서 유의 창조인 위대한 생명의 탄생이다. 생명의 연속은 인류의 존속되게 했다. 지구 위의 인류의 역사의 연속은 끊임없는 생명의 소멸과 생명의 시작인 지구의 자전과 같이 계속되는 사랑이며, 그 진정한 사랑은 개인의 이기적인 테두리를 벗어난 자신의 옆 짝과 같은 존재인 인류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본다.

<김경숙>

-II. 4775-6: Haines 신부가 O’Flynn 신부 뒤에서 O’Flynn 신부의 페티코트를 들추어 엉덩이 사이에 당근을 내보이며 O’Flynn 신부의 라틴어 “Corpus meum”을 패러디하여 “My body”라고 받는 장면. 여러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부의 범의를 들추는 행위는 물론 영국 국교회 목사인 Haines 신부의 아일랜드 카톨릭교에 대한 조롱으로 볼 수 있는데(남기현), 이 때 신부의 엉덩이 사이에 꽂힌 당근은 동성애 코드를 환기시켜 성적으로 타락한 아일랜드 종교에 대한 풍자로 읽을 수 있다. 또한 “My body”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미사 집전 시 영성체에 대한 의미를 품고 있지만, 동시에 이 흑미사가 다름 아닌 미나 퓨어포이 부인의 만삭의 배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미사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영혼적인 의미보다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다.

-I. 4805에서의 Corny Kelleher의 등장: 장의사인 켈러허의 등장은 뒤에 죽은 자의 영혼인 Rudy의 등장을 위함이 아닐까. 즉, 이 부분에서 켈러허는 죽은 자의 혼령을 인도하는 사자(messenger)의 역할을 하는 듯하다.

제 85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304호

일시: 2011. 3. 26. (토) 오후 2:00-6:00

독회진행자: 박진훈

범위: *Ulysses*, Chapter 16 “Eumaeus,” Lines 1 ~ 319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이종일, 전은경, 민태운, 유두선, 길혜령, 남기현, 박진훈, 손승희, 이영심, 김상욱, 김석, 김경숙,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하버드대학 대학원생(Amanda, Justin), 서울대 학부생(권동욱, 강태승, 정진이), 서울대 대학원생(김한성, 이상훈, 전현령, 손예린, 정지원, 오예슬, 이은주)

<발제>

Ulysses 16 (Eumaeus) — <Cabman’s Shelter, 역마차의 오두막>

1. Time: 01:00 a.m. ~
2. Scene: Cabman’s coffeehouse Shelter under the Loop Line bridge, just west of the Custom House, near Butt Bridge, (in 1904) the easternmost bridge over the Liffey. (small eight-sided building, approximately ten feet by fifteen feet)
3. Organ: nerves
4. Art: navigation
5. Color: none
6. Symbol: sailors
7. Technique: narratives(old)
8. Correspondences:
Eumaeus—Skin-the-Goat;
Ulysses, *Pseudangelos* [the False Messenger]—the Sailor;
Melanthious [Olyseus’s goatherd, hoisted up to the roof]—Corley
9. Character: Bloom, Stephen, Murphy(Mariner), Skin-the-Goat(James Fitzharris,

Phoenix park murders of the Invincibles(L 590), merely drove the car for the actual perpetrators(L 1066)), etc.

10. Characteristics:

There's no inner confession of characters concerning dramatical incident.

Bloom imagines Stephen as a 'commercialized artist.'

The distorted languages and styles different from the realism of 19 century.

Drowsy style of writing alludes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of Stephen and Bloom.

Sentences has many dialects and slangs of Scotland, so not vigorous.

storytelling – the return of the initial style?

that is, in the 16 chapter there is a speaking subject.

11. *The Odyssey*:

In Book 13 Odysseus returns alone to Ithaca. To escape Agamemnon's fate he has a long consultation with Athena. Athena disguises Odysseus as an old man and counsels him to seek the dwelling of the swineherd Eumaeus. In Book 14 Eumaeus receives the incognito Odysseus with hospitality and honesty. Book 15 describes how Telemachus avoids the ambush the sui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dysseus and Eumaeus. In Book of 16 Odysseus tests son (Telemachus)'s filial commitment. Reunited, father and son plan an approach to their house.

<Summary and discussion>

L 1 ~ L 228: The walking process of Bloom and Stephen

(Before entering the Coffeeshouse of Skin-the-Goat)

(L 1~ 99)

Bloom은 Stephen의 옷에 묻은 대팻밥 덩어리를 털어주고, 모자(hat)와 물푸레 나무 지팡이(ashplant)를 집어주면서 정신 차리도록 격려한다. 약간 불안정한 Stephen이 물을 요구하자, Bloom은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다수나 탄산수 같은 음료를 파는 Butt Br. 근처의 '역마차의 오두막'으로 가자고 한다. 그러나 그곳까

지 갈 바를 몰라 대책을 강구하는 Bloom과 술 취한 Stephen은 몹시 지쳐 있었다. (블룸은 비누냄새 풍기던 손수건을 집어 올리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들은 타고 갈 마차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Beaver street를 빠져나와 Dan Bergin 주점의 모퉁이를 돌아 Amiens street로 걸어간다. 목적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이나 Stephen은 지쳐서 걸기 힘들다. 블룸은 North Star hotel 바깥에 정차하고 있는 마차를 발견하고 대절 마차꾼을 찾으려고 양팔을 머리 위로 아치처럼 쳐들고 두 번이나 휘파람을 불어 마차꾼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L 31~)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Amiens의 기차 종착역으로 걸어갔다. Bloom은 바지 뒷단추 한 개가 떨어지려고 했으나 경시하고, 비온 뒤 맑게 갠 상쾌함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 살사차(sandstrewer, 撒砂車)가 되돌아오자 Bloom은 자신이 살사차에 치일 뻔 한 사건을 스티븐에게 얘기한다. 곧 그들이 도착한 Great Northern 기차역도 자정이 지나 모든 교통이 두절되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영안실(morgue)을 지나 Store street로 돌아 들어갔다. 이곳을 지나치며 Stephen은 Ibsen에 관해 뭔가 생각했던 것을 기억했다. Stephen의 충실한 벗(*fidus Achates*) 역할을 수행하는 Bloom은 James Lourke의 빵공장에서 스며 나오는 빵 냄새를 맡으며 빵에 대한 상념에 젖는다.

(L 60~) 아직 술이 덜 깬 Stephen에 비해, 정신이 맑은 Bloom은 Stephen에게 받거리의 위협과 매춘부들 그리고 멧쟁이 사기꾼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한다.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여 유도(jiujitsu)라도 배우라고 하면서, 아까 11시에 Korny Kelleher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사고자 보호소나 교도소에 갔을) 뻔 했다고 주의를 준다. 이어서 평소 경찰관(policemen)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Bloom은 경찰관들은 직무상 일을 하면서 파렴치한 짓을 하고, 억지로라도 범죄를 찾아내려고 하며, 상류계급 경호만 신경 쓴다고 비판한다. 아울러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한다. 또한 Stephen에게 빈둥거리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고, 술 마시며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아버지 같은 잔소리를 한다. 오래된 특선 포도주(choice old wine) 한 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동료 의대생들이 술 취한 Stephen을 내버려두고 떠난 그들의 변절을 비난한다. 이에 Stephen은 변절자는 유다(Lynch)였다고 말한다.

<Discussions>

1. (L 58~59.) Bloom이 빵에 대한 서술이 Bloom의 기분뿐 아니라 오딧세우스의 변장을 상징하는 가장(假裝)의 주제를 암시하는가?
2. (L 98) Stephen이 Lynch를 변절자를 대표하는 유다(Judas Iscariot)로 단정 짓는 발화의 이면에는 자신을 핍박받는 예수와 동일시하려는 것은 아닌가?
3. 변절자에 대한 Bloom[medical students]과 Stephen[Lynch]의 시각차가 나타내는 connotation은?

(L 100 ~ 319)

이런 이야기를 하며 걸다가, Loop Line bridge 밑을 통과한 Stephen은 市 야경초소(the corporation sentrybox)옆의 화로(brazier) 앞에서 졸고 있는 Gumley를 발견하고 그의 부친을 기억한다. 이 야경원(watchman)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철교 기둥 쪽으로 걷던 Stephen은 평소 알고 지내던 Corley와 마주치게 된다. Corley는 건달이고 몹시 빈곤에 찌들어 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을 쏟는다.’는 생활신조를 지닌 Bloom은 건달인 Corley를 몹시 경계하면서 근심스럽게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어 Narrative는 맥주 냄새를 풍기며 떠돌아다니는 Corley(Lord John Corley)의 족보(genealogy)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는다.

(L 144~) Corley는 Stephen에게 현재 저녁 잠자리를 마련할 돈도 없고, 친구들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그는 Lenehan과 말다툼을 한 후라 Lenehan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곧 Stephen에게 일거리를 얻을 만한 곳을 얘기해 달라고 간청한다. 일자리를 부탁하는 Corley에게 어제 아침에 자신이 사직한 boys' school of Dalkey의 기간제교사(usher) 자리를 소개했으나, Corley는 학교선생은 못하겠다고 거절한다. 그러나 스티븐의 처지 역시 곤궁하기는 마찬가지다: I have no place to sleep myself, (L 163). Stephen이 잘 곳이 없다고 하자 Corley는 Stephen이 매춘부를 하숙집에 데리고 가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는 Stephen이 유복하게 지내며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Stephen은 Mr Garrett Deasy에게 급료를 받았다는 생각에 Corley에게 1 shilling(bob) 가량의 돈을 빌려주려고 주머니를 뒤졌으나 부서진 biscuits만 있었다. 그러나 다른 호주머니에서 돈을 찾아낸 Stephen은 반 크라운의 은화

(halfcrown)를 그에게 빌려준다.

(L 197) Corley는 고맙다고 하면서, Stephen 곁에 있던 Bloom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는 Bloom이 billsticker Boylan과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아는 체한다. 그리고 Sandwichman이나 청소부(crossing sweeper)라도 좋으니 소개 좀 해달라고 Stephen에게 채용을 부탁한다. Two and six shilling을 얻은 Corley는 네이글家에 오던 Bags Comisky(book keeper)에 대해 Stephen에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Corley는 그에게 밤에 만취한 상태로 난폭하게 굴면서 경찰의 연행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체포되어 10 shilling의 벌금을 물었던 자(者)이다.

(L 211~) 그동안 Bloom은 화로(brazier of coke) 근처의 돌무더기(cobblestones)를 배회하면서, 선잠(forty winks)자고 있는 watchman에 대해 생각하다 Stephen과 대화하는 Corley에게 수상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Corley의 낡은 모자(dilapidated hat)와 초라한 옷차림(slouchy apparel)에 흥을 보기도 하고, 밤에 사람을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 절면피한 행위(cool assurance)라고 비난한다.

(L 229~ 319) Stephen이 Corley와 헤어지자, Bloom은 Stephen과 다시 합류한다. Stephen은 Bloom에게 Corley가 일자리(sandwichman)를 부탁하더라고 말한다. 이에 Bloom은 Stephen의 잠자리를 걱정한다. 그들은 계속 걸어가면서 Simon Dedalus(Stephen's father)와 Buck (Malachi) Mulligan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Bloom은 Stephen의 아버지를 재주도 있고, 선천적인 이야기꾼이라고 칭찬하지만, Stephen은 사계대제일(quarter tense, ember days) 때 동생들(Dilly, Maggy, Boody and Katey)이 낡은 화로 가에서 청어(herrings)와 egg, 오트밀죽(oatmealwater)을 먹던 궁핍했던 시절을 떠올릴 뿐이다. 이 때 Bloom은 Stephen에게 안내자이며 철학자, 그리고 절친한 동료 역할을 하는 Dr Mulligan을 “이해타산에 밝은 자”라고 하면서 주의하도록 타이른다. 한편 Mulligan은 의사 직전의 사나이로 구하기도 했고, 현재는 개업의(medical practitioner)로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청년이다. Bloom과 Stephen은 이내 icecream car 주변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한 무리의 Italians 곁을 지나간다.

<Discussions>

1. Stephen이 Corley에게 반크라운을 적선하는 행위의 connotation은 무엇일까?

(경제적 관념이 부족해서 인가?, 혹은 인정이 많아서 인가? ...)

2. Bloom이 Corley를 건달(dissolute man)로 보면서도 Stephen이 돈을 주는 행위 등의 언행을 말리지 않은 이유는? (단지 머리로만 판단하고 실천력이 약한 Bloom의 소심한 기질 때문인가?)
3. Stephen이 Simon의 부권(paternal authority)을 인정하지 않는 언술은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함에 기인한 것인가? 혹은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가?

<토론 및 의견>

<민태운>

- cliché와 관련하여: 이 에피소드에 “e. d. ed”, “all in”, “fag out” 등 “지친다”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와 새벽 1시에 지쳐있는 등장인물들과 잘 연결된다. /관용적인 표현은 흔히 별 의미 없이 장식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A Portrait에서 스티븐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hollow voice”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특히 블룸이 스티븐에게 아버지처럼 대하며 잔소리를 해댄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블룸과 스티븐이 정신적인 부자관계를 맺는다는 주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인가?

-I. 252: 15장 261라인을 떠올린다. 블룸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어지는 대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과 블룸이 스티븐을 대리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II. 52-59: 스티븐과 블룸을 대조시키는 대목으로 추상적이고 문학적이며 현학적인 스티븐은 입센의 작품을 생각하고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며 경험 중심적인 블룸은 빵 냄새에 이끌린다.

-I. 231 “blandiloquence”의 의미: [L. blandiloquentia; blandus mild + loqui to speak.]Mild, flattering speech. 사전에 의미가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약간 다르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던 듯하다.

-I. 288: “allround man” 블룸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멀리건을 가리키고 있다.

<양진이>

-I. 17 “e.d.ed”: 기포드 주석에 의하면 “exhausted”의 의미를 갖는 이디엄이라고

나오는데, 문맥상으로도 통하는 “endeavored”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한다.

- 많은 환상과 환영이 극적 형식을 빌려 표현된 Circe장을 뒤이은 호머의 책에서 충실한 하인로 등장하는 Eumaeus장 속에서 그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Bloom과 Stephen이 Molly가 있는 집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인물의 등장과 목소리로 다뤄진 15장과 전혀 다른 16장은 긴 산문체로 곳곳에 제임스 조이스가 의도적으로 다룬 격언, 속담, 관용어, 문학에 등장한 주인공의 명언 등을 많은 사용하고 있다. 이런 관용어들의 공통점은 단어 글자 자체의 의미 외에 오래된 습관과 관용어가 생성된 이야기들로 표면적 의미와 다른 숨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들의 효과는 두 남자의 표현되는 말과 행동과 달리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으며, 두 남자는 표면적으로 무관한 관계이지만 그동안 겪은 정황은 정신적인 부자(父子)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숨은 의도가 보여 진다.

16장의 부제인 에우마이오스는 호머의 작품에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전쟁에 출정하여 20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동안 오디세우스의 재산인 돼지를 잘 돌보았으며, 오디세우스와 함께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의 구혼자들에게 복수할 때 오디세우스를 배신하고 구혼자들에게 빌붙은 멜란티오스를 붙잡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오디세우스가 이타케섬에 상륙하였을 때, 아테나 여신은 그를 늙은 거지로 변신시킨 뒤 에우마이오스를 찾아가라고 하였다. 에우마이오스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극진하게 대접하였고,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돼지들과 함께 자는 에우마이오스에게 굳은 신뢰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정체를 밝힌 장소도 에우마이오스의 오두막이었다고 한다. 결국 오디세우스는 에우마이오스를 통해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과거의 삶을 되찾는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16장의 주제를 호머의 『오디세이아』(Odysseia)의 13장의 부제인 ‘에우마이오스(Eumaeus)’를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Ulysses) 16장 부제가 된 이유와 동일시하여, 앞으로 계속될 독회를 통해 그것을 찾아보려고 한다.

<김경숙>

- 16장의 전체적인 어조는 불륜과 스티븐의 부패은 환상과 은밀한 내면에 초점을 맞추었던 15장과 큰 대조를 보이는 문체이다. 사물의 핵심보다는 끊임없이 변죽을 울리고 내면보다는 외면적 묘사에 치중하여 중언부언이 지루하게 반복되던 19

세기의 3류 소설을 읽는 기분일까? (15장까지 『율리시스』를 읽어온 독자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더블린 거리에 대한 부연설명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클리세들의 향연이 더더욱 그러하다) 덕분에 15장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아들 루디가 걸어 들어오는 장면을 목도하여 블룸과 스티븐의 부자관계가 어떻게 이어질지 잔뜩 기대를 안고 15장을 끝마친 독자들은 16장의 무미건조한 - 언뜻 보기에 그다지 파격이지도, 실험적이지도 않은 - 문체를 마주했을 때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분명 조이스만의 의도는 있을 터이니 앞으로 이어질 독회가 기대된다.

- 504-5쪽: Corley와 Stephen 사이의 상황의 일치가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잠자리 구할 돈 한 푼 없는 상태(“Not as much as a farthing to purchase a night’s lodgings”)나 친구들에게서 모두 버림받은 상태(“His friends had all deserted him”)가 그러하고, 특히 각각의 어머니가 일가친척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는 면에서 그러하다(“they were connected through the mother in some way, both occurrences happening at the same time if the whole things wasn’t a complete fabrication from start to finish”).

제 86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2호

일시: 2011. 4. 23.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박진훈

범위: *Ulysses*, Chapter 16 “Eumaeus,” Lines 320 ~ 703

참석자: 김종건, 김길중, 이종일, 민태운, 남기현, 박진훈, 손승희, 이영심, 김상욱, 김경숙,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오예슬(서울대 대학원생), 하버드대학 대학원생(Amanda, Justin)

<발제>

(L 320~) 마침내 Bloom & Stephen은 소박한 목조 건물인 Cabman's Shelter 안으로 들어가는데, the keeper는 “한때 유명했던 ‘Skin-the-Goat(산양 껍데기)’ 즉, Fitzharris, the invincible(무적혁명단, 피츠헤리스)로 얘기되고 있는” 자이다(L 323-24). Two noctambules(두 나그네 몽유병자)는 잡다한 손님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한쪽 모퉁이에 앉는다. Bloom은 지친 Stephen에게 한 잔의 coffee와 roll(bread)을 권한다. coffee와 roll을 주문한 후, Bloom과 Stephen은 잠시 Italian(이태리어)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잠시 후 keeper가 coffee와 bun(빵 한 쪽)을 table 위에 놓는다. 곧 Stephen이 Bloom에게 Sounds(소리)는 해석하기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는 names(이름들)처럼 imposture(사기꾼)이라고 말하자 Bloom은 Stephen의 말에 동의한다. 그 때, 손님 중에 Sailor(선원, ①, L 367~)가 Stephen에게 이름을 묻고, Simon Dedalus를 아느냐고 물어본다. 그러자 Stephen은 “I'd heard of him.”(L 379)이라고 대꾸한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Stephen)도 못 알아보는 seaman(바다사나이, ②)은 Simon Dedalus가 lefthand dead shot(왼손잡이 명사수)이었다는 무지한 정보를 떠벌린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흘린 sailor는 Stephen의 아버지 Simon Dedalus가 10년 전 Hengler's Royal Circus(헝글러의 로열 서커스단)와 여행하며 Stockholm에서 곡예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상습적인 거짓말을 토로한다.

(L 415~) 이어 sailor는 자신이 Queenstown harbour(퀸즈타운항) Carrigaloe(캐리겔로우) 출신의 D. B. Murphy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곳에서 little woman이 7년 동안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연관하여 Bloom은 전통적인 homecoming to the mariner's shieling(수부의 귀향 이야기) 등—stories of Alice Ben Bolt, Enoch Arden, Pip van Winkle etc.—을 상상한다. 이는 A mariner가 오랜 방랑 끝에 돌아왔으나,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새로 맞이한 젊은 남편과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fireside(난롯가)에서 행복을 즐기는 장면을 목격하는 이야기이다: “No chair for father.” (L 436)

<Discussion>

1. Stephen은 하느님을 거리의 소음(God: noise in the street: U 9. 85-86) 이라고

하며 9장에서 소리에 삶의 가치를 부여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소리(sound)와 이름(name)을 사기꾼(imposture)이라고 불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Cabman's house에서 Skin-the-Goat는 keeper로서의 역할 이외의 connotation은 무엇인가?
3. (L 415~36) 아버지의 부재는 주로 Stephen의 주요 쟁점이었는데, Bloom이 말하는 mariner의 귀향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부재는 Stephen의 것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L 443~) 이 때 sailor가 chew(씹는 담배)를 부탁하자 keeper는 jacket에서 plug(담배)을 꺼내 건네준다. Sailor는 quid(담배)를 씹으며 한 장의 discharge(해고증)을 내보이며 “아침 11시에, the threemaster *Rosevean*(세 돛대의 범선 ‘로즈빈’)을 타고 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D.B. Murphy. A.B.S.(able-bodied seaman; 특급선원)—이 쓰인 해고 통지서를 보여준다. Stephen은 이 배를 같은 시각 Sandymount Strand에서 어깨 너머로 보았다. Sailor는 계속 Captain Dalton(돌튼 선장)의 지휘 하에 Red sea(홍해)를 비롯해 “세계를 거의 한 바퀴 순항했다(circumnavigated)”고 자랑하면서 항해했던 장소들을 늘어놓는다. 또 그가 경험했던 여러 진풍경 중, Peru에서는 maneaters that eats corpses and the livers of horses(사람의 시체와 말의 간을 먹는 식인종들, 470-71)도 봤다고 떠벌리며 picture postcard(그림엽서)를 꺼내 table 위에 내민다. 그 postcard에는 한 무리의 savage women(야만적인 여인들)이 20여 명의 아이들에 둘러싸여 젖을 물리고 ... 즐기고 있었다. 이어 tarpaulin(선원, ③)은 이들이 종일 coca(코카)를 씹고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diddies(젖꼭지들)을 자른다고 섬뜩한 말을 한다. 이런 야만적 maneaters를 쫓아버리려면 Glass(거울)를 사용하면 된다고 tip을 준다. 이 때 Bloom은 postcard 이면에 적힌 *Chile*(칠레)의 이름과 주소로 미루어, 수부의 이름(D.B. Murphy)과 엽서의 수신인(*Señor A. Boudin*)이 다른 것을 알고 그의 말에 희의를 품기 시작한다. 한편, sailor의 이러한 여행담은 Bloom으로 하여금 아내 Molly와 함께 영국의 해안 요양지 등을 둘러보는 concert tour of summer music(하계 연주 여행)을 생각하며, 자신이 the Tweedy-Flower grand opera company(트위디-플라우어 그랜드 오페라단)의 단장이 되고 Molly가 leading lady(주연여우)가 되어 떠나는 꿈을 꾸다. 그러자 다음 순간 사업가 기질이 있는 Bloom은 Ireland의 Rosslare(로슬레어)와 England 남서부

Wales(웨일즈)의 Fishguard(피쉬가드) 사이에 “Fishguard-Rosslare route”라는 “opening up new routes”(새로운 항로의 개설, 532)가 대중의 여행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L 539 ~) 이 때 Narrator가 끼어들어 “old stick-in-the-mud”(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영감, Bloom, 543)가 아내를 집에 틀어박혀 있게 하는 행위는 absurd하며 blame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Ireland에서 유명한 휴양지 및 관광지 5곳을 소개한다: spots for rejuvenation(회춘의 유람지), steamtram(증기 궤도)이 있는 Poulkaphouca (waterfall), garden of Ireland인 Wicklow, 경관이 수려한 wilds of Donegal, 또한 rhododendron(만병초꽃)으로 유명한 [the Hill of] Howth 언덕 등 (L 549~63). 이는 Bloom의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를 narrator의 간접 담론을 통해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L 570 ~) “The doughty narrator”(대담한 이야기꾼, ④)는 언젠가 a Chinese가 몸에 지니고 다니던 “little pills like putty”(퍼티처럼 생긴 작은 알약, 571)에 대하여 회상하는데, 이 pill을 water에 넣으면 ship, house, flower가 되는 신기한 변신(transformation)을 소개한다. 그 이야기에 반신반의하는 회중에게 “the globetrotter”(지구의 배회자, ⑤)는 Trieste의 어떤 knockingshop(사창가)에서 일어난 또 다른 모험담을 풀어놓는다. 이는 smugglers(밀수꾼들)의 시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An Italian chap이 clapknife(재크나이프)로 어떤 사람(a man)의 back(등)을 찔러 죽이던 끔찍한 광경을 실감나게 이야기 한다: “Chuk! It[clapknife] went into his back up to the butt.”(L 582), “아무리 강한 자도 놀라기에 충분한 ‘dénouement(대단원)’이 끝나자, 그는 blade(칼날)을 찰칵 닫아 문제의 그 weapon을 전과 같이 chamber of horrors(공포의 방), 말하자면 pocket 속에 집어넣었지.” (L 586~88) 이 끔찍한 살인 이야기가 끝나자 somebody(어떤 사람)가 Ireland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 1882년 5월 6일에 발생한 “the [Phoenix] park murders of the invincibles”(피닉스 공원의 무적혁명단원들의 암살 사건, 590-91)를 언급한다. 그는 이 암살 사건에 Knives가 사용됐기 때문에 foreigners(외국인들)가 감행했을 거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의 생각을 덧붙여 말한다. 이 말에 Bloom과 Stephen은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하고, keeper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L 601~)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다. 각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데, Bloom은 1881년(15세)에 발생한 the land troubles(토지 분쟁)에 대해 생각한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Sailor가 자신이 꺼내 놓았던 papers(discharge, 해고통지증)를 달라고 하여 챙긴다. 그러자 Bloom은 처음으로 대화에 끼어들어 자칭 sailor에게 말을 건넨다: “Have you seen the rock of Gibraltar [Molly’s birth place]?” (L 611). 그러나 rover(방랑자, ⑥)는 spit(침)을 sawdust(대패밥)에 내뿜고 머리를 흔든다. 이어 배고픈 듯 입담배를 짹짹 씹으며 대답한다: “나는 바다와 그 따위 모든 rocks(암초)에 지쳤단 말이오.” (L 623)

(L 624~) 피곤해 보이는 wily old customer(교활한 늙은이, ⑦)에게서 더 이상의 reminiscences(회상)나 change(기분전환)을 얻지 못할 것을 눈치 챈 Bloom은, sailor의 navigation과 관련하여 globe의 three fourths(3/4)를 둘러싸고 있는 the water의 거대한 크기와 그 매력 등에 관해 명상에 잠긴다. 또 North Bull at Dollymount에서 wall(제방) 위에 앉아있던 old salt(늙은 선원, ⑧)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여기서 Bloom[our Odysseus]은 하루 종일 방랑 한 후 육체적 피곤함을 느껴, 그의 명상 역시 더 느슨해지고 비논리적이며 초점을 잃고 있다. 이어 Bloom은 자연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lifeboat Sunday(구명보트 모금 일요회), harbourmasters(水上 경찰들)과 coastguard(해안경비대장)의 값진 일들에 대하여 계속 명상한다.

(L 653~) 이 때 Henry Campbell(the townclerk)을 닮은 old seadog(늙은 선원, ⑨)은 상륙하여 gentleman’s valet(급사)로 일을 했던 경력과 draper(포목점)에 취직시켜준 his son, Danny(about 18)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L 666~) 그리고 Sailor, 즉 the Skinbberien father(스키베린 출신의 아버지, ⑩)가 lice(이)를 잡기 위해 shirt를 찢히자 그의 가슴에 anchor를 나타내는 tattoo(문신)가 드러난다. 그러자 손님들은 (homosexuality를 암시하는) 16라는 숫자와 약간 찡그린 젊은이의 옆얼굴을 뚜렷하게 본다. (L 676) 자신의 tattoo를 보여주던 the exhibitor(전시자, ⑪)는 이 tattoo가 Black Sea’s Odessa (harbor)에 정박했을 때 Antonio라는 Greek이 새겨 주었다고 설명한다. That worthy(저 英雄, ⑫)가 tattoo를 손으로 움직여 Antonio의 얼굴을 다양하게 변용시키자, 이러한 curious effect(불가사의의한 효과)는 Skin-the-Goat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Sailor는 Antonio의 비참한 최후를 상기하며 한탄스러워 하기도 한다: Ate by sharks after. Ay, ay. (L 690)

<Discussions>

1. (L 367 ~) sailor의 articulation에서 slippage가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postcard) 이것들을 paternity(부권)/occupation(직업)/place(대화하는 장소)와 연관한다면 어떤 분석이 가능한가?
2. Sailor가 말하는 Trieste의 knockingshop(사창가) 살인사건과 Phoenix park murder에서 knife가 갖는 연관성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3. Sailor를 묘사하는 단어가 21가지(sailor, seaman, tarpaulin, doughty narrator, globetrotter, rover, wily old customer, old salt, old seadog, Skinbbereen father, exhibitor, worthy / skipper Murphy(726), old stager(930), skipper(969), veritable son of a seacook(978), redoubtable specimen(983), impervious navigator(1011), rough diamond(1012), old veteran(1016), old tarpaulin(1021))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런 어휘들이 sailor의 identity를 규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What's the positive/negative functions of these vocabulary?
4. Sailor는 동료 선원이었고 사자(死者)인 Antonio를 회화화하는 도구로 tattoo를 변형시킨다. 이는 Sailor가 손님/독자에게 보여주는 사실적 언행으로 그동안 Sailor가 말했던 articulation의 불신을 회석하고 손님들에게 감탄을 유발함으로써 그의 위치를 더 확실하게 해준다. 이 tattoo 사건에서 Sailor가 의도하는 그 밖의 connotation은 무엇인가?

<토론 및 의견>

<남기현>

- 숫자 16과 동성애와의 관계:

일단 Gifford의 주석에 따르면 “16.675 the figure 16: In European slang and numerology the number sixteen meant homosexuality.” 이게 전부인데,

Jennifer Levine, “James Joyce, Tatoon Artist: Tracing the Outlines of Homosocial Desire” (Quare Joyce, 101-120)에서 다른 주석을 언급함.

Stuart Gilbert's footnote in James Joyce's “Ulysses,” (New York: Alfred A. Knopf, 1930), 310

Les Tatouages in the Collection de Psychologie Populaire de Dr Jaf from Levine's

footnote 13 (p.118)

Commenting on his chest, Gilbert claims that six and sixteen were Neapolitan slang for certain sexual practices or positions. More significantly, though, the particular tattoo cited as evidence by Dr. Jaf includes the signature of the tattoo artist, who is also the lover of the woman who bears it. The thought of Antonio as “lover,” I will argue, is not entirely foreign to “Eumaeus.”

하나 더, 서양에서 동성애와 연결되는 숫자는 11. 이유는 완벽한 수 10에 어긋나는 숫자로서, 정상적이 아닌 성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성애와 연결짓는다고 함. 그리고 점성술과 연결하면... Aquarius자리와 같다고 함... Bloom의 별자리가 그렇지 않나요??

<양진이>

- 오디세우스는 1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10년을 방랑하다 고향으로 와, 아내 페넬로페가 있는 이타카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충직한 돼지치기 에우마이우스 오두막을 거치게 된다.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받아 오디세우스는 늙은 거지로 변장하여 에우마이우스에게 거짓말로 꾸며 자신의 신분을 감춘다.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에우마이우스이지만 늙은 거지인 오디세우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20년간 남편 없이 지낸 여왕 페넬로페가 수많은 구혼자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4월 23일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Ulysses) 320행부터 703행까지에서 볼 수 있는 호머의 『오디세이아』(Odysseia)을 전부 번안(global adaptation)한 내용(Homeric Parallel)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염소가죽 피츠해리스로 유명했던 주인이 운영하는 역마차마부들의 오두막(cabman's shelter), 신분과 경험을 거짓으로 말하는 머피(D. B. Murphy)라는 인물, 진위(眞僞)를 알 수 없는 7년간 수부 머피가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어린 아내의 이야기 등이 있다. 이것을 볼 때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고전인 호머의 이야기를 현실로 각색한 배경을 설정하여, 머피라는 수부의 사이먼 데덜러스 이야기와 전해 내려오는 비극적인 수부 귀향 이야기인 거울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앓고 있는 젊은 스티븐과 아내의 불륜 사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중년인 블룸이 각각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두 명의 주인공은 표면적인 의미외에 숨은 뜻을 포함하는 상투어의 언어적 매력처럼 스티븐은 수부와 대화로, 블룸은 아내

몰리(Molly)와의 하계 연주 여행을 상상으로 현실을 거짓으로 꾸민다. 하지만 사실, 들은 반성을 통해 예전의 화목했던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억제된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작가는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 사이먼이 왼손잡이 명사수이자 행글러 로열 서커스단 곡예사였다는 수부의 거짓말이지만 스티븐에게는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주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우쭐함이 있을 것이고, 젖을 물리고 있는 미개한 여인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젖꼭지를 자른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근본적인 모성애를 다시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반면 아내와 데이트 한 장소, 아내가 태어난 곳, 아내와 처음 만난 날(16) 등을 연상케 하는 상황들은 블룸에게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그 때를 회상하게 하였을 것이다. 작가는 작중인물의 큰 주제적 상황을 고전 소설의 배경을 현대화하였을 뿐 아니라, 작중인물이 생각하는 핵심단서를 다른 이야기로 전개하고 있다. 독자에게 서로 상이한 여러 이야기를 제시해 주고 그 이야기의 핵심 단서들이 다시 주제의 이야기를 생각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경숙>

-1.362 “Sounds are impostures.” 보이는 것, 소리나는 것 등의 현상(appearance)과 실제(reality) 사이의 괴리라는 주제를 건드리는 부분이다. 스티븐의 아버지를 안다고 주장하는 수부-화자의 이야기는 결국 동명이인에 대한 착각이거나 아예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둘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어지는 선원의 믿기 힘든 식인/야만인 이야기 또한 비슷한 맥락에 위치해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 내미는 수취인 주소가 잘못 표기된 엽서는 선원의 이야기 전부와 16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로 만드는 듯하다. 이 선원에 대해 “sailor, seaman, tarpaulin, globetrotter” 등 다양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 또한 어느 하나로 고정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인 identity의 문제로 귀결되며 이는 결국 스티븐에게는 블룸이라는 이름(label)은 없지만 오히려 친부인 사이먼 디덜러스보다 더 진정한 부자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해석으로 나아가는 듯하다.

제 87회 『율리시스』 독회

<모임>

장소: 세종대학교 집현관 802호

일시: 2011. 6. 11. (토) 오후 2:00-5:30

독회진행자: 박진훈

범위: *Ulysses*, Chapter 16 “Eumaeus,” Lines 704 ~ 1015

참석자: 이종일, 민태운, 남기현, 박진훈, 손승희, 이영심, 김경숙, 양진이(세종대 대학원생), 하버드대학 대학원생(Amanda, Justin)

<발제>

(Line 704 ~ 1015): 매춘부 관리, 영혼의 순수성, 불륜의 돈벌이 생각, 선원의 방뇨와 호칭들, keeper의 애국심

(L 704 ~) Sailor가 tattoo(문신)를 변용시켜 주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을 때, black straw hat(검은 밀짚모자) 아래로 streetwalker(매춘부)의 수척한 얼굴이 Shelter(‘오두막’)의 문 주위에서 안쪽을 기웃거린다. 이에 당황한 Bloom은 마부가 두고 간 Abbey street organ(애비街 기관지; *Evening Telegraph*)을 집어 들고 ‘왜 핑크색일까?’ 자문하며 애써 그녀를 외면한다. 그는 그녀가 당일(아니 정확히 전일) 오후 Ormond quay(오먼드 부두)에서 본 the same face(바로 그 매춘부)임을 알아본다. Idiotic female of the lane(백치 같은 골목길의 여인)은 Bloom이 최초로 성적 경험을 한 여인으로, 그의 아내 Molly를 잘 알고 있으며 세탁물을 수집하는 세탁부이기도 하다. 세탁물에 대해 생각하던 Bloom은 Holles street(호레스가)에 살 때 Moly의 때 문은 undergarment(속옷)를 빨아 주던 일을 상기한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불결한 셔츠도 사랑할지어다.” (여기 세탁은 섹스의 완곡어법이다.) 이때 the (Shelter’s) keeper가 매춘부를 쫓아내기 위해 난폭한 sign을 보내자 Bloom은 안도의 숨을 쉰다. 문간에서 서성거리던 그녀는 곧 자취를 감춘다.

(L 728~) Bloom은 Stephen에게 Lock hospital(로크 병원)에서 퇴원한 몸으로 병균을 발산시키는 저런 여인들이 후안무취하게 남성을 유혹한다고 못마땅하게 말한

다. 그렇지만, Stephen은 Bloom에게 이러한 여성의 육체적 행동보다 더 못한 영혼을 파는 자들에 대해 언급한다: “Fear not them that sell the body but have not power to buy the soul.” (L 737) Bloom은 그런 여성은 necessary evil(필요악)이지만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의학적인 검사도 받지 않는 것은 crying scandal(지극히 나쁜 치욕)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Bloom은 the soul(영혼)을 ‘두뇌의 힘’이요, ‘대뇌 회백질의 주름’이라 하면서 “자네는 가톨릭교도로서 영혼의 존재를 믿고 있지?”, “intelligence(지성)이나 brainpower(두뇌의 힘)를 어떤 외부의 사물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나?” 하고 물어본다. 이런 질문에 Stephen은 영혼은 ‘순수한’ 것이요, 부패하지 않고 하느님도 없앨 수 없는 불멸의 것이라는, 그의 학구적 정의를 내린다: “if[the soul] is a simple substance and therefore incorruptible. It would be immortal.” (L 756~57) 덧붙여 이런 이유로 court etiquette(법정 관례)에서 영혼의 ‘본질적 타락’과 ‘우발적 타락’이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설명에 Bloom은 영혼의 head of simple(‘순수한’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Röntgen(X-rays), Edison(telescope), Galileo와 같은 과학자들의 발명품을 예로 들면서, 위대한 과학자들의 발명품과 그들 영혼의 순수성을 a horse of another colour(전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 영혼에 대한 Bloom의 이와 같은 생각은 Stephen의 것보다 더 practical하며 그가 평소 애용하고 있는 응용과학적 정의를 반영하고 있다. 영혼에 대한 이들의 관점은 Stephen이 인용하려는 passages in Holy Writ(성서의 구절)과 Bloom이 언급하는 과학적 발명품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 교육 정도나 여러 면에서 poles apart(양극)인 Bloom은 Stephen과 충돌하고 만다.

(L 777~) Bloom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monks(수도승들)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고 하며, (도서관 장면에서 보듯) Shakespeare의 *Hamlet*과 Bacon 처럼 과연 ‘누가 그것을 썼는가?’하는 작가의 신빙성 문제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의혹은 그의 평소의 불가지론의 철학과 정치적/경제적 마르크스주의자의 실질성에 근거한 것이다.

Bloom은 Stephen에게 커피를 저어 줄 테니 마셔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Stephen은 Bloom이 권하는 커피와 bun(빵)을 먹을 수가 없다고 거절한다. 그는 또 여기 Cabman’s Shelter에서 on teetotal lines(절대 금주의 조건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악회, 연극의 밤, 강연회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데도 별 반응을 얻지 못

하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 또한 아내 Marion Tweedy의 피아노 연주에 경영자들이 지급했던 형편없는 보수에 대해서도 마음 아프게 회상한다. Bloom은 선행도 하고 돈벌이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all eatables(모든 음식물)에 medical inspection(의학적 검열)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이와 연관시켜 Dr Tibble's Vi-Cocoa가 유행했던 것도 의학 분석표 일거라고 생각한다.

(L 807~) Stephen은 Bloom이 Coffee를 저은 후 “한 모금 마시라”고 권하자 마지못해 입에 댄다. 그러자 Bloom은 regular meals(규칙적인 식사)와 solid food(실속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때 Stephen은 식탁 위에 놓인 hornhandled knife(빨 자루달린 나이프)를 치워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유인즉 knife가 Stephen에게 로마 역사(Julius Caesar와 Marcus Junius Brutus의 비극)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L 830~) 그 동안에, Sailor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던 Bloom은 Sherlockholmes적 탐색을 계속한다. 그러나 Bloom은 wellpreserved man(젊어보이는 사나이, ⑭)이 전개하는 모험담이나 spoof(속임수)가 전적으로 fabrication(날조)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인생이란 수많은 일들과 끔찍한 특성을 지닌 우연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며 사고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 life was full of a host of things and coincidences of a terrible nature ...” (L 824-25) Bloom은 Sailor가 동료 선원 Antonio를 죽여서 4,5년의 감옥살이를 했을 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곧 이어 Stephen에게 Henry Street(헨리가)에서 보았던 bowlegged(O자형 다리, 내반슬)한 Aztecs(아즈텍 사람들)의 waxworks(밀랍인형)에 대해 이야기한다. 신으로 숭상된 Aztecs의 다리 sinews(힘줄)가 마비된 현상을 순수한 영혼들의 example(일례)라고 말한다.

(L 858~) Bloom은 friend Sinbad(친구 신바드, ⑮)의 모험담이 본질적으로 별반 모순이 없음을 시인한다. 또한 Bloom은 italianos(이태리인들의) 성급함, 상인들의 근면성, 음식을 강탈하는 기질 등을 서술한다. 그리고 Spaniards(스페인 사람들)의 성급하고 passionate temperaments(정열적 기질)을 명상한다. Bloom은 이와 연관하여 스페인 태생(i.e. Gibraltar)인 자기 아내 Molly를 Stephen에게 자랑한다. 그는 사람의 character(성격)이 climate(기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Stephen에게 Italian(이태리어)으로 poetry(詩)를 써보라고 권한다. 이에 대해 Stephen은 icecream car의 Italians가 10 shillings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Dante와 (Beatrice) Portinari, Leonardo (da Vince), san Tommaso Mastino(Aquinas)의 이름을 들먹이며 탄청을 피운다. 그러자 Bloom은 Kildare street museum(킬데어가의 박물관)에서 본 antique statues(고대의 조각상들)에 나타난 여성들의 몸매와, 의상에 관심이 없는 여성들의 취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개인적으로 Rumpled stockings(주름진 스타킹)을 싫어한다고 말한다.

<Discussions>

1. Gumley에 대해서는 호칭이 계속해서 부정적(doublebarrelled ass, 951)인데, Sailor를 규정하는 단어가 호의적(wellpreserved man, friend Sinbad 등)으로 변하는 이유는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을 드러내는 장치인가?
2. Bloom과 Stephen의 soul에 대한 관점의 차이(Bloom: practical, 발명품, 다리 힘줄의 마비 VS. Stephen: 학구적, 이상적)와 ‘영혼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영혼의 순수성에 대한 다른 시각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Knife가 살인과 배신의 도구(Phoenix Park 살인 사건, Italianos, Spaniards, Brutus 등)로 형상화 돼 있는데, Knife가 다른 용도로 쓰인 예는?
4. St.은 왜 Dante, Leonardo, Aquinas를 언급했나?(L 886-87) 이들의 연관성과 차별성은 무엇인가?

(L 899~) 그 와중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해상 사고, 안개 속에 조난된 배, icebergs(빙산)와 충돌 등 Odysseus의 항해다운 면모들로 흘러간다. Shipahoy(어이 배, ⑩)도 얘기에 끼어들어 cape(희망봉)과 China seas(지나해)를 통과했던 이야기를 하고, 심해의 온갖 재난에서 자신을 구해 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pious medal(메달)을 사람들에게 보여 준다. 곧 좌중의 이야기는 Norwegian barque(노르웨이 바크 돛단배)의 난파선(Palme 호)까지 뻗어 간다. 어떤 사람은 Mona(<모나> 호)와 충돌하여 승무원 전원이 행방불명 된 Lady Cairns(<레이디 케언즈>호) 사건을 이야기 한다. 바로 이때, Sailor는 소변을 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rum(럼주) 두 병을 호주머니에 꽂는다. 도중에 그는 목을 적시기 위해 바지 뒷주머니에서 럼주 병을 꺼내 한 모금 꿀꺽 마신다. Bloom은 old stager(늙구렁이 같은 놈, ⑪)가 여자에게 수작을 부리려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Sailer는 male urinal(남자용 화장실)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방뇨를 한다. 이 방뇨 소리에 cabrank(마차승차장)의 horse가 깨고, 이어서 corporation stones(石材시역소)의 파수꾼 Gumley가 단잠에서 깨어나 몸을 비틀거리다가, 다시 limbs(四肢)를 가다듬고 Morpheus(夢神)의 팔에 안긴다. Gumley는 한때 연간 100 pound의 돈을 벌어들였던 존경받는 가문의 후예였으나, 이 doublebarrelled ass(호리명당한 당나귀 녀석)는 상습적인 음주벽으로 인해 지금은 무일푼이 되어 곤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L 957~) 그 동안 Shelter의 손님들은 아일랜드의 연안과 해외 항로에서 falling off in Irish shipping(아일랜드 해운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크게 개탄하고 있다. harbours(항구)는 많은데 귀향하는 배가 없기 때문에 Ireland 해운업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the keeper(‘산양깎데기’)가 그 쇠퇴는 wrecks and wreckers(난파와 난파선 약탈자들) 때문이라며 좌중의 대화에 끼어든다. 그는 정부가 1850년대 영국의 Liverpool harbour와 Galway harbour 간 대서양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Galway harbour scheme(골웨이 축항 기획)을 제안했으나, British government(영국 정부)가 palmoil(뇌물) 공세와 음모를 꾸며 골웨이 축항이 실패하고 말았다고 비난한다. Keeper는 마침 Shelter로 다시 들어오는 skipper(선장, ⑱)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 That worthy(그 英傑)는 그르렁거리는 목소리로 chanty(뱃노래)인지 뭔지 모를 노래를 부르며 들어온다. 이때 Bloom의 sharp ears(귀)는 Sailor가 씹고 있던 plug(입담배)를 내뱉는 소리를 듣는다. 아무튼 libation-cum-potation(방뇨—‘검’—음주)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부는 다시 ‘스와레(주연)’의 분위기를 일깨우면서, veritable son of a seacook(배의 요리사의 진짜 아들, ⑲)처럼 으스스대며 떠들썩하게 뱃노래를 부르며 들어온다: “—The biscuits was as hard as brass”

(L 983 ~) redoubtable specimen(무서운 적수, ⑳)가 들어와 앉자, ‘산양 깎데기’(피츠 해리스)가 자연의 혜택이 주는 아일랜드의 축복에 대하여 열을 올리며 말하기 시작한다: “Coal(석탄)을 많이 생산하고, 600만 pounds의 pork 그리고 1000만 pounds의 butter and eggs를 수출하며, Navan(내번 주)—county Meath를 잘 못 알고 있음—에서는 tobacco(담배)를 재배한다. 또한 Irish bacon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Keeper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아일랜드를 자세히 설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Ireland 번영의 신화 이면에는 언제나 Ireland의 all the

riches(모든 부)를 착취하는 영국이 도사리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가 여기서 토로하는 민족주의적 신념은 옛 이스라엘의 그것처럼 본질적으로 역사의 신념이요 성스러운 정의의 패턴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Brummagem England(못된 영국)은 멀지 않아 몰락할 것이요. 아일랜드는 그의 downfall(몰락)을 위한 Achilles heel(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L 1003). 그는 자신의 말에 증거를 대듯이 자기의 tendon(발뒤꿈치살)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렇지만 impervious navigator(둔감한 항해자, ㉠)는 keeper가 토로하는 언술을 그저 태연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다 silence가 흐르자 그 rough diamond(조잡한 사내, ㉡)는 갑자기 keeper에게 “행동으로 옮겨보란 말이오”하고 풀이 난 듯 내뱉는다. Keeper는 Sailor의 이 비난에 동의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Discussions>

1. Keeper의 애국적 언술(천연자원, 경제적 착취)과 Citizen의 감정적 애국심 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이 있나?
2. Keeper가 Sailor에게 자신의 견해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행위에는 어떤 connotation이 있는가? Shelter의 담화들에서 Keeper와 Sailor의 역학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Sailor: 대화를 주도하지만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VS. Keeper: 가끔 끼어들지만 그의 언술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다)

<토론 및 의견>

<남기헌>

- 16.708: the pink sheet: 조이스가 1904년 6월 16일을 재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신문이 *The Irish Times*(주간신문)과 *The Evening Telegraph*(석간신문)이었는데, 자료가 없었던 후자가 어느날 건물 공사중에 발견되어 상세한 내용을 보니 조이스가 참조했다고 여겨질 여러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http://www.haret.net.pwp.blueyonder.co.uk/splitpea/LastPink.pdf>

여기를 보면 조이스가 참조했다고 생각되는 석간신문의 PDF 파일이 있습니다. 보급형 버전(*Ulysses*에 언급된 부분만 모아 놓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Police Gazette*이라는 잡지도 pink색 종이에 인쇄되었습니다.

-아래 첨부된 사진은 Dr Tibble's Vi-Cocoa 사진입니다.



-16.816: It reminds me of Roman history: 당연히 Brutus의 Caesar 암살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Eumaeus 장에서 자주 언급되는 1882년 피닉스공원 암살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질문인데, 16.858: Ludwig, alias Ledwidge에 대한 언급의 의미는...???

<양진이>

6월 독회(L704-1015)의 주제(motif)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 사용된 제임스 조이스 작가만의 독특한 서술적 기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세부적으로 『젊은 예술가의 초상』 5장에 나타난 ‘이등변 삼각형(isosceles triangle)’의 의미와 3장과 5장의 대조인 간결한 대화체와 강건한 만연체의 차이를 파악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신바드의 모험』(The adventure of Sinbad)속의 허무맹랑한 허구의 모험과 그 속에 나타난 진실을 반추해보고, 실제 인간 삶(레이디 케언즈 충돌사건 등)속의 실제 진실과 부풀려진 거짓을 모더니즘(Modernism)적 시각으로 독자들 스스로가 판단하게 하는 유사한 점을 찾아야 한다. 그 후 성경에서 룯의 아내가 수치스런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된 구원의 말씀에 대한 불복종과 아일랜드인들의 구원자인 파넬 파멸 사건과의 형이상학적 공통점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6월 독회 내용은 원인과 결과를 엮어 이야기 전달이 유기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단지 작가만의 독특한 단어적 의미와 기술법을 사용하여 표현했을 뿐이고, 나 또한, 좀 더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고진감래(no pain no gain)의 뜻을 선사하는 바이다. 대신 나만의 결론으로는 이것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나타난 가시적 사물과 나만의 불가시적인 관념에 대해 조명해

볼 수 있었다.

책이라는 가시적인 글자를 통해 독자들은 불가시적인 감동을 받는다. 그 감동이 인간 모두 같을 순 없지만, ‘사랑’, ‘고통’, ‘증오’, ‘기쁨’ 등 과 같은 추상적 의미의 정의를 내릴 때 글자를 통한 간접성과 경험을 통한 직접성이 일치할 때이고, 대부분의 보통 인간은 사건에 대한 유사할지 모르는 감정에 동일한 추상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경험이 없던 학부 시절, 강한 자가 살아남는 절대주의 시대에 살았던 셰익스피어의 작품마다에서 나오는 카타르시스(catharsis)를 감각적으로 알지 못해 질문 한 적이 있었다. 비극을 보면 슬퍼야지, 오히려 마음이 정화되는 것인가는 문제였다. 지금 나는 카타르시스의 정의를 알며, 어느 순간 ‘카타르시스 구나!’ 말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가 의도적으로 카타르시스적 기술법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작가가 남긴 글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이해했고 현실에서 그 의미를 느끼고, 셰익스피어의 각기 다른 주제와 소재의 작품들의 유사성을 다시 새겨본다. 이런 근거를 통해 작가는 작품 속에서 불가시적으로 불멸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 작품이 읽혀지는 한, 작가적 영혼은 그 작품 속에서 영원히 존재한다.

<손승희>

- 발제문과 토론거리에 제시된 (L 807~) 중 칼이 언급된 부분과 관련하여~ 스티븐에게 식탁위에 놓인 나이프가 로마역사를 상기시킨다면서 치위달라하는데, 율리시스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스티븐 자신의 별명인 Kinch, the knifeblade(1장 1.55)이 연상된다. 율리시스 첫장에서처럼 알렉산더 대제이든 16장에서처럼 시저와 브루터스이든 스티븐의 별명과 연상범위를 맴돌고 있는 칼의 비유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로마의 영향권 넓은 의미에서 지배세력에 눌러지내는 스티븐의 처지가 그저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는 인상도. 한편 식탁에 놓인 같은 나이프를 블룸이 언급할 때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로마나 고대의 어떤 면도 뾰족하게 연결될 게 없는, 그저 날이 무딘 평범한 빨자루 달린 나이프(a blunt hornhandled ordinary knife: l. 818)일 뿐이다. 다시 독자에게는 무딘 칼이면서 오쟁이진 남성 블룸의 처지를 떠올린다. 율리시스 16장에서 남성인물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글의 흐름 자체가 칼로 상징되는 남성의 힘이 무더진 국면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밀반침이 더 요구되는 해석일 수 있겠다.

<김경숙>

- 전체적으로 「에우마이오스」장은 「싸이클롭스」장과 더불어 바호쥘의 다양한 담론과 목소리와 혼재와 공존을 의미하는 “heteroglossia”의 개념을 육화하는 듯하다. 스티븐과 블룸을 위시하여 shelter의 keeper와 sailor 각자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뒤죽박죽으로 털어놓는다. 특히 sailor가 항해에 관한 믿기 힘든 모험담을 털어놓은 후 그가 화장실을 가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이스는 “It having become necessary for him to unfurl a reef the sailor vacated his seat”이라 서술하고, 또한 선원 자신 역시 “Let me cross your bows mate”라는 항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항해 담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흥미롭다.

- 블룸은 741행에서 “women of that stamp”로 다음 행 “oldmaidish”에서 여성으로 언급되는 것이 흥미롭다. 실제 784-7행에서 “Can’t you drink that coffee, by the way? Let me stir it. And take a piece of that bun. [. . .] Try a bit.”라며 스티븐에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에서 블룸의 세심한 여성적 면모가 도드라진다.